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1호 HYUNBULNEWS.COM 2025년 5월 21일(음력 4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6·3대선 불교계 정책 제안…대선 후보 '佛心잡기'

조계종, 현안 자료집 만들어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
선명상 · 전통문화 진흥 담겨
태고종 정책기획단 위원 위촉

이재명, 가장 먼저 공약 제시
김문수, 종정 성파 대종사 예방
민주당, 통도사서 현안 청취도



"한국불교 미래 100년 열어가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한국불교 미래 100년을 위해 '사회통합 실현' '정신문명 선도' '사회적 역할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신도회 임원단, 대선 후보자 부인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김내영 기자

임은호 · 김내영 · 하성미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와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불교계는 현안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은 사찰과 불교 행사를 찾는 등 불심(佛心)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 '국민 행복' 정책 제안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대선 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불교 현안을 제안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조계종은 정책 자료집에서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사회통합 실현 △정책 구현의 4대 분야 18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행복'을 견인할 첫 번째 과제로 '선명상 대중화'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명상 보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명상 사업은 각계각층별, 명상 수준별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 모두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평안해지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 지도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핵심 역할을 할 '중앙 선명상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전통사찰보존지 지목 현실화 △전통사찰(사찰림 포함) 소방·방재 종합대책 마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체계 개선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방안 마련 △국공유지 대부료 납부 사찰에 대한 토지 불하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통합 실현 부문에서는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도 과거사 치유 및 불교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 시설 건립 지원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찰 피해 보상 △제주 4·3사건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 호국 보훈 정신 선양을 위한 호국기념관 건립 및 해외 안장 순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추진도 정책으로 내놨다.

태고종, 정책 제안 본격화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5월 15일 총무원장 직속 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전문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정책기획단장에는 태고종 교육원장 재흥 스님이 선임됐고, 자문위원으로는 태고종 문화부장 월타 스님,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최원철 한양대 특임교수, 천우정 국회 정각회 사무국장, 김병하 국회 정각회장 보좌관, 정용준 임오경 국회의원 보좌관, 김명순 태고종 총무원장 특보가 위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국가 대소사를 앞두고 태고종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며 "비록 한시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태고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를 넘어 사회적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 직후 정책기획단은 2층 총무원장실로 자리를 옮겨 첫 회의를 열고 불교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해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선 후보들 불심 잡기 잰걸음

대선 후보 중 가장 먼저 불교 공약을 제시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을 발표하고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전승·보존 토대 마련 △전통문화 가치 제고 및 전승·보존 정책 강화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 개선 △종교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전통불교문화 진흥에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전통문화를 단순한 옛 유산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문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신앙 여부를 떠나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공공 영역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전통문화가 곧 국가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화답하며 "법과 규정만 따지기보다, 불교가 지닌 자비와 공동체 정신을 사회 전반에 녹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본부(본부장 김병주·김영배)도 통도사를 찾아 '여시아문 신수봉행(如是我聞 信受奉行) 간담회'를 개최하며 불심 잡기에 진력했다. 간담회는 민주당 불교본부와 불교위원회가 조직을 재정비한 후 처음 마련한 공식 간담회로, 불교계와의 소통 강화 및 공동 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석 스님들은 사찰 방재 대책과 문화유산 제도 개선, 동물권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요구했다. 김병주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도 불교계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불교 중흥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대위 불교본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주요 교구본사와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화사 종헌종법 위반 행위 중단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담화문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총림 해제를 가결하면서 동화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헌·종법을 위배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5월 13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회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 등 총림 구성 기구들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제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동화사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종법에서 정한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종단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대중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국불교 위상을 실추하는 훼불해종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임은호 기자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5월 13일 지정예고

서울 강남 봉은사가 설행하는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원명 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경암 스님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학술·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생전예수재보존회는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
한 그릇에 생명을 담다
2025.06.07(토)~08(일) 양재aT센터 제1전시장
주최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영남 산불 피해 복구…“문화유산·이웃 위한 자비행”

아름다운동행, 산불 직후 모금…21억원 모연해
고운사 등 6개 피해 사찰에 6억 5000만원 지원
진우 스님, 5월 26일 경북도청서 가전제품 후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문화유산 보존을 염원하며 조계종이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25일 발생한 대형 산불 직후 ‘산불재난 및 문화유산 복지지원기금’ 모연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2차에 걸친 긴급 지원을 단행했다. 향후 지속적인 복구와 보호 활동을 위한 계획도 수립 중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많은 생명과 소중한 문화유산에 큰 피해를 남겼다. 먼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가 화마에 잿더미로 변했다. 고운사는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의성 운람사는 전각과 부속건물 7개동 등 모든 전각이 소실됐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비구니사찰 청송 보광사는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성 만장사는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이 소실됐으며, 통일신라 석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던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산불 발생 후 아름다운동행에 재난 복구 기금이 모여졌고 5월 15일 현재 21억원 상당이 모연됐다. 사진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고운사에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전통 사찰들과 주변 마을이 갑작스러운 화마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자 조계종은 산불 발생 다음날 바로 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산불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교계 언론사, 포교·신도단체, 그리고 일반 불자들이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졌고 5월 15일 현재 21억원 상당이 모연됐다.

아름다운동행은 모연을 바탕으로 피해가 심각한 사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2차에 걸쳐 고운사에 5억원을, 운람사와 만장사, 용담사 등 5개 사찰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3~4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5월 26일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 직접 방문,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현재 임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12억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한다. 이날 전달될 가전제품은 냉장고 800대와 텔레비전 1200대다. 가전제품은 전달식 이후 바로 영남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재민 중 시군구에서 추천받은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추후 사찰 피해 현황 조사를 비롯해 이재민들의 규모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순 복구와 지원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장기 대응 계획도 구축해 나간다는 것. 또한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지역복지와 연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발 빠르게 1~2차 지원을 무사히 마치고 가전제품 지원도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난지원이 아니라 사찰과 마을, 문화와 공동체를 함께 되살리는 작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회 직능 보궐 우경 스님 단독 입후보

5월 21일, 오후 2시 자격심사
6월 4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에 우경 스님〈사진〉이 단독 입후보했다.

중앙종회 사무처는 5월 14일 오후 5시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사회) 보궐선거 입후보를 마감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단독 입후보한 우경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3년 범어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사성암 총무국장, 용주사 기획국장, 사성암 총무국장 소임을 지냈으며 현재 사성암 주지다.

입후보 자격심사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종회 6월 10일…‘소임 제한’ 입법 논의

6월 10~14일, 5일 회기로 진행
안건접수 4일 · 종책질의 5일 마감

조계종 중앙종회 제234회 임시회가 6월 10~14일, 5일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5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 제1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34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안건접수 마감은 6월 4일, 종책질의 마감은 6월 5일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26일 열린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종헌 개정의 건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 △선거법·산중총회법·사찰법·중앙종회법·호계원법·청년출가 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총림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 건 등이다.

연석회의에서는 동림사 총림 지정 해제 후 대응 방안과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 저지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가 가결된 후 동화사 측에서 법원에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 저지 활동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종회에서는 ‘승려법’에 규정된 ‘스님 사정’에 따라 종단 소임을 구분하는 법안 제정도 다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5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 제34조 6에 규정된 ‘승려 사정’ 구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선광 스님은 “‘출가 전 결혼생활로 자녀가 있으면 향후 민법의 상속과 유류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인륜은 천륜이라고 해 세속에 있는 자녀와 유형무형의 관계가 지속돼 삼보정재가 가족에게 유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선광 스님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사정 갑’은 종단의 모든 소임을 수임할 수 있고 ‘사정 을’은 종정, 원로의장,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및 종헌종법 상 위원회 위원장을 수임할 수 없다. ‘병’과 ‘정’은 중앙(교구)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선출직 종무원, 공찰 말사 6등급 이상 주지, 창건주 권리승계 등이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 스님들은 “최근 속가 가족과의 재산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다만 몇몇 스님들은 “최근 늦은 나이에 출가하며 결혼 이력이 있는 출가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출가 이전 이력으로 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은호 기자

회당 대종사 제123주년 탄생절 기념불사

5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서
“진각대도 새바람 일으키자”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5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23주년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과 끝없는 정진을 서원했다.〈사진〉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봉축사를 통해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 오신 거룩한 날을 맞아 기념불사를 봉행하는 참 의미는 우리에게 맡겨진 불사에 더욱 용맹정진하는 데 있다”면서 “섬김, 소통, 화합으로 감동교화를 실현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포교와 교화를 위한 각종 준비를 하면서 일일우일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진각종도들은 종조께서 불교를 혁신하고 전법하신 정신을 되새겨서 진각대도의 새바람을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원장 정법 정사는 실행론 ‘심인진리의 생활화’, ‘생활불교의 본령’ 등 종조 법어를 낭독하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서울교구청장 겸 총무부장 법운 정사는 강도발원에서 “종조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각자의 서원을 세우고 정진의 고삐를 다잡겠다”면서 “어두운 세상을 태양 같은 등불로 밝혀 희망이 꽃피고 행복이 넘치는 밀엄정토를 일구어 만다라 세상이 지금 이곳에서 피어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총지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 각 심인당은 이날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대종사 탄생의 뜻을 기렸다.

신중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530호(5월 7일자) 1면 ‘불기 2569년 봉축법요식’ 기사 중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우암당 혜산 대종사 20주기 추모제 안내

내소사는 도량의 바위하나 나무 한그루에도 대충창주 우암당 혜산 대종사의 피땀이 스며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도량입니다.
어느덧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2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저희들은 스님 영전에 깊이 참회합니다.
우암당 혜산대종사 후학들은 대종사님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추모제를 봉행합니다.

일시 | 불기 2569(서기 2025)년 6월 1일 (음.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내소사 대웅보전



불기 2569년 5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문도 일동

중앙신도회 70주년…‘조직 활성화 원년’ 선포

5월 12일, 신라호텔에서 기념식
진우 스님 등 700여 명 참석
‘국민 통합’ 퍼포먼스 · 비전도 제시
정원주 회장 “치유 · 평안 불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중앙신도회 발전에 헌신한 김의정, 이기흥 상임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은 공로패 수여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위상을 높이며 신도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신도조직 활성화’의 원년을 선언하고, 올바른 수행공동체로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 ‘정신문명 선도’ ‘사회적 역할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어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회원7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기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를 비롯해 김영배 국회정각회 수석부회장, 김형동 부회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전국신도회로 출범한 이후 불자 교육·포교·복지·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불교 대중화·사회화에 힘썼다. 2004년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를 통합하고 신도회관을 건립해 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부설법인 (사)날마다좋은날을 설립해 행복바라미 캠페인,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선명상 대중화’ ‘청년불자 포교 활성화’ ‘남산 마애불 바로모시기’ 등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정원주 회장은 올해를 신도조직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교구신도회 및 청년층 포교활성화에 매진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핵심가치를 대중에 알려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축제(9월20일, 광화문광장)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바라밀 골프 대회(9월8일, 나주 중흥골드레이크) △제5회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9월20~21일, 전국 주요 사찰)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바라밀 파크골프대회(9월27일, 구미 동락 파크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를 이끌며 종단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는 정원주 회장과 임원진들을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이제는 단순히 불교를 지켜내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불교의 본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가치를 사회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재가불자의 수행 실천이 종단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고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원만회향하는 중앙신도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신도회 발전에 헌신한 김의정, 이기흥 상임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의정 상임고문은 23·24대 중앙신도회장을 맡아 신도회관을 건립을 주도했다. 이기흥 상임고문은 25·26대 회장 재임 중 15개 상설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공헌 사업인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이끌었다.

행사는 ‘국민 통합,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탑등에 빛을 밝히며 화합과 상생의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한국불교 100년 미래를 위한 중앙신도회 3대 핵심과제 비전 선포로 마무리됐다.

조계종 복지정책특보에 일운 스님

진우 스님, 5월 14일 위촉장



조계종 복지정책특별보좌관에 일운 스님〈사진〉이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일운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불교사회복지에 진심을 다해 일해왔기에 종단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 특보에 임명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힘써온 경험을 살려 종단과 불교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복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대가 크다”면서 “더불어 승려복지 발전에도 역할해 달라”고 말했다.

일운 스님은 “복지정책 특보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불교계 복지관 수탁 등에도 신경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운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지장선원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국사 주지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집 이옥선 할머니 영면

5월 11일, 향년 97세



나눔의집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사진〉가 5월 11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이옥선 할머니는 1927년 부산 중구 보수동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42년 7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위안소에서 1945년 8월 해방되기까지 3년간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할머니는 중국 길림성 팔도전 호조촌에 거주했으며 2000년 6월 나눔의집에 입소했다. 2001년 국적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회복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군 도검에 찔린 손발 흉터와 구타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도 인권 운동가로서 피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증언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을 방문해 ‘위안부’ 참상을 알리고 201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는 ‘인권 대장정’을 펼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언론에 일본의 진정서 있는 반성을 요구해왔다.

이옥선 할머니는 2024년 1월부터 지속적인 신장투석과 치료를 위해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이 악화돼 동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5월 11일 오후 8시 5분 영면했다.

발인이 열린 5월 14일 나눔의집 대표이사 세영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때묻은 역사 속으로 당신의 삶이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부유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영 스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궈가겠다”면서 “한없이 포근하고 단아했던, 역사와 진실 앞에서 당당했던 용기 있는 여성을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옥선 할머니의 유해는 5월 14일 인천 푸른바다장에 뿌려졌다.

이옥선 할머니가 떠나면서, 국내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6명이 됐다.

임은호 기자

아낌없이 주고 간 ‘인곡당 법장 대종사’ 기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대회

5월 23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서
법장 스님 삶, 보살행 등 조명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1941~2005·사진)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과 수행, 보살행 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법장 스님 열반 20주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법장 스님은 자신의 바랑에 중생의 고통을 모두 담고자 했다. 원력보살이었다. 법장 스님은 1994년 3월 생명공양실천회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으며,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듬해부터는 신장이식, 뇌사자 장기기증, 골수기증 등을 이뤄내며 불교계에 ‘생명나눔운동’을 정착시켰다. 이후 평생을 생명운동에 매진했으며, 자신의 법구를 기증해 마지막까지 무소유와 베풂의 삶을 실천했다.

또한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중 비구니 문화부장을 발탁하는 등 비구니스님 위상 제고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던 스님은 이라크 전쟁 당시 조속한 전쟁 중단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전쟁터인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다. 불교문화유산의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을 위해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일에도 참여했다.

‘아낌없이 주고 가신 인곡당 법장 대종사’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펼쳤던 스님의 다양한 실천·자비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교수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출가와 수행’ △동국대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법맥과 가풍’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사회활동’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의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종단활동’ 등이 발표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기념사업회는 9월 11일 열린 20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행장집(가제)〉을 봉정한다.

신중일 기자

담 화 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을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팔공총림은 강원과 율원 등 총림 구성 기구들이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팔공총림 해제는 수행과 전법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교구를 운영하라는 종단적 고심의 결과입니다. 안건 상정과 심의, 결의 역시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해제된 총림의 직위와 조직명을 계속 사용하면서 말사 주지스님들을 압박하며 신도들이 총림 지정 해제 반대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법에서 정한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종단 종헌과 종법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종도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종단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훼불해종 행위입니다.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는 종헌 · 종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며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일입니다. 그 결정의 정당성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화사 소임자들은 종헌 · 종법을 위배하고, 종단의 기강을 어지럽히며 종도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종회는 불법(佛法)의 근본정신과 종헌종법에 따라 사부대중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는 종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헌 · 종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합니다. 또한 종헌 · 종법을 수호하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고 수행 중심의 청정한 교단을 구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불기2569(2025)년 5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종책모임회장

‘지미불’ 100회…대학 포교 새 장 열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동국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불교동아리 장학생 100명에게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직접 수여
3년6개월 동안 67개 사찰 동참
재학생 2800명에 28억원 전달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15일 교내 남산홀에서 ‘제100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장학증서 수여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종립 동국대만의 대표 장학제도인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100회를 맞았다. 사찰과 재학생들을 연결하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새로운 장학모델이자 캠퍼스 전법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5월 15일 교내 남산홀에서 ‘제100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성이 동국대 총장,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 이해원 의료원장, 박기련 법인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후원 사찰 주지스님, 장학생 100명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3년 6개월 동안 67개 사찰과 후원자들이 2800여 재학생들에게 28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열린 85회에는 637명, 91회에는 717명 등 대규모 인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날 100회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불교동아리 회원 100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은 단주와 불서 〈붓다〉를 전달했다.

이어 증명법사로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100회를 축하한다”며 “동국대는 전국 사찰과 사부대중에게 젊은 불교의 활발한 기운을 전해주며 모범적인 전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더 친근한 불교, 따뜻한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동국대 발전과 불교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1호 사찰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도 장학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100번의 장학금 수여 과정에서 담긴 절절한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은사스님이 물려준 정재를 상좌스님들이 장학금으로 전하기도 했으며, 사찰 행사마다 꽃을 팔고 보시금을 모아 장학금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감로수와 같았다. 희귀병으로 큰 수술까지 받고 학업을 포기하려는 순간 장학금을 받게 돼 다시 용기를 얻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부터, 목숨을 걸고 넘어온 남한에서 어렵게 공부를 시작한 탈북민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까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건학위원회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서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이 200, 300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 무산문화대상에 권여선·양성원·이태석재단 선정

5월 30일 시상식 개최
각 부문에 상금 1억원
23~25일 속초 일원서
설악무산문화축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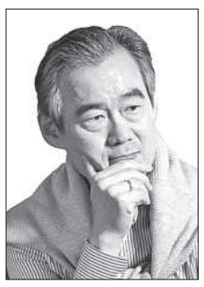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제2회 무산문화대상 문학 부문 권여선 소설가, 예술 부문 양성원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 사회문화 부문 이태석재단.

설악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의 제2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5월 12일 “제2회 무산문화대상 문학 부문에 권여선 소설가, 예술 부문 첼리스트 양성원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 사회문화 부문에 (사)이태석재단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 소설가는 1996년 장편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생을 받으며 등단한 이래 오영수문학상(2007), 이상문학상(2008), 김유정문학상(2021), 만해문학상(2024) 등을 수상한 문단의 중진 작가다.

무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장편소설 〈각각의 계절〉 등에서 나타나는 예민한 감각과 독특한 리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관통하며 현실의 표면에 미쳐 드러나지 않는 삶의 굴곡을 환기한다”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응시하면서도 연민과 공감의 끈을 놓지 않는 권 소설가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인 양성원 교수는 오스트리아의 뮤직페라인, 파리의 살 플레엘, 뉴욕의 카네기 홀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활약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첼리스트다. 또 ‘페스티벌 오원’의 예술감독으로서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사회문화 부문 이태석재단은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사랑,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의료봉사와 교육, 빈곤 퇴치를 목표로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태석재단 선정 이유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봉사 활동과 지원사업이 상생의 정신과 나눔의 고결한 의미를 전파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확대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제2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은 5월 30일 오후 5시 그랜트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부문별 수상자에는 각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광장에서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을 개최한다.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은 제3회 설악청소년문화축전과 제2회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으로 구성된다. 무산 대종사의 문학·예술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설악청소년문화축전에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대회, 댄스페스티벌, 백일장, 사생대회 등이 진행된다. 50여 개의 문화체험프로그램과 16개의 프리마켓도 펼쳐진다.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에서는 27개 지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신중일 기자

한국명상총협회, ‘강남힐링센터’ 운영

5월 13일, 강남구청서 협약식
외부 위탁운영으로 최초 사례



(사)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스님)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조성명)과 함께 ‘K명상’의 대중화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명상 플랫폼 운영에 나선다.

양 기관은 5월 13일 강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강남힐링센터(신사)’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한국명상총협회가 신사동에 위치한 강남힐링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명상을 기반으로 한 공공 힐링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센터는 오는 6월 중 개관 예정이다.

강남힐링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정신건강 관련 수요와 웰니스 트렌드에 대응하는 공공 정책이다. 신사센터는 강남구가 2020년 코엑스센터, 2021년 개포센터에 이어 조성하는 세 번째 힐링센터 거점이다. 특히 신사센터는 앞선 두 센터가 강남구청 직영인데 반해 첫 외부 수탁운영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각산 스님은 “한국 고유의 간화선과 고대 명상인 안반선(아나빠나사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문 명상 및 싱잉볼 강좌를 통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과학원 ‘현대사회 마음’ 살핀다

5월 31일, 국제심포지엄

현대사회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조명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5월 3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주제로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케너스 펑 토론토대 교수가 ‘수용전념치료와 불교-융합과 분화’를, 최훈동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가 ‘마음공부와 자기 치유-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를, 김주현 강원대 명예교수가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최명희 경북대 강사, 이준엽 약산에 한방병원장, 김준형 오산대 평생교육원 외래교수가 맡는다.

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엄은 한마음선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여수 흥국사 도솔암 화재…전각 3동 전소

5월 11일 발생…인명 피해는 없어



전남 여수시 영취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흥국사의 마지막 산내 암자인 도솔암(주지 보련 스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각 3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사진〉

화재는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발생했으며 극락전을 포함한 주요 전각이 완전히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 바람과 목조 구조 특성상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사찰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석사 관음상 日반환…“환지본처 기원”

서산 부석사, 5월 10일 봉송법회
100일 간 친견…5만 명 찾아
“관세음보살님 다시 만나요”
日간논지 고불 후 박물관 수장

서산=유재상 충청지사장

왜구에게 약탈돼 일본 쓰시마 섬으로 넘어갔다가 647년 만에 돌아왔던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관음상)’이 봉안 원찰 서산 부석사에서 100일 간의 친견법회를 마치고 다시 일본에 반환됐다.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5월 10일 경내 설법전에서 ‘부석사 관음상 봉송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부석사 관음상을 봉송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관음상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우 스님은 “1330년 왜구의 약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뜻을 모아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불상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날씨마저도 슬퍼하듯이 짙은 운무가 눈앞을 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문화유산은 소유물이 아님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과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 관음상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일 양국 관계에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부석사 관음상은 일본으로 떠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의 환수 노력이 끊이지 않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의 법회가 한일 양국 문화유산 보전과 환수 협력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음보살님께서 돌아가시지만 언젠가 시기가 도래한다면 다시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갈등도 있었지만, 상호 협력하며 발전해 왔다. 우리의 원력만 있다면 상호 화합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장 진경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의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별의 심정을 대신했다. 진경 스님은 “부석사 관음상을 떠나보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부대중을 보니 마음이 숙연해진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풀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월 10일 봉행된 봉송법회에서 서산 부석사 사부대중이 일본으로 반환되는 부석사 관음상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있다.


어린이 신도가 그린 그림이 불전에 올려져 있다. 그림에는 ‘관세음보살님,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라고 적혀 있다.


서산 부석사에서 봉행된 봉송법회에서 참가 사부대중이 진정한 환지본처를 부처님께 서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서산 부석사에서 열린 관음상 친견법회에는 100일 동안 5만여 명이 방문했다. 또 불자와 시민 2만여 명은 일본 반환이 아닌 부석사 계속 봉안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은 시대적 조류다. 프랑스는 법을 바꿔 아프리카 약탈 유물을 돌려줬고, 얼마 전 선종한 교황도 그리스 유물을 돌려주면서 ‘전 세계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인류의 양심이고 정의’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일본 학계·종교계·시민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답해야 한다.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그저 ‘내 물건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양국의 역사·문화·종교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이 이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서산 부석사는 앞으로 관음상 약탈과 국내 반입 후 반환 소송을 담은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 또 일본 각지의 귀무덤, 코무덤 등 우리 선조의 유해가 묻힌 무덤의 흙을 가져와 봉안하고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 측은 이날 봉송법회를 마치고 실물 검증을 거쳐 낮 12시부터 불상을 특수운반 차량에 실어 공항으로 이운했다. 5월 11일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경유해 12일 배편으로 쓰시마섬에 입도해 간논지에 봉안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논지는 5월 12일 법요식을 봉행하고 반환을 알렸다. 주지 다나카 세쓰료 스님은 “한국의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한국 서산 부석사와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시마 시는 안전과 보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석사 관음상을 쓰시마 박물관에 보관할 방침이며, 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상을 특별 공개한다.

부석사 관음상 반입부터 반환까지

原봉안처는 서산 부석사인데 돌아올 수 없는 관음보살님

2012년 10월 6일 김모 씨 등 5명은 쓰시마 내 무인 경비 신사 및 사찰에 침입해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고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관음상)을 훔쳐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X선 투과대가 없는 후쿠오카항을 통해 부산으로 입국했다. 절도범들은 입국 당시 부산세관에는 모조품이라고 설명하고 통과했다. 이후 인터폴의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12월 22일 절도범 일당을 검거하게 된다. 이들은 절도 혐의가 인정돼 2013년 10월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동시에 관음상은 원(原)봉안처가 서산 부선사임이 알려지며, 도난과 환수 사이에서 논란을 겪게 된다. 2013년 1월 31일 조계종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된 것으로, 정부는 이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와 쓰시마 관음사서 입수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부석사 관음상, 어떤 불상인가?

부석사 관음상은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키 50.5cm, 얼굴 길이 13.4cm, 몸 두께 17.5cm, 무릎 폭 42.2cm이다. 앞으로 약간 숙인 둥그스름한 얼굴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부석사 관음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장 발원문이다. 1951년 쓰시마 관음사 주지 안도가 발견한 ‘결원문’이라는 제목의 발원문에는 “천력(天歷) 3년 2월(1330년) 서산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堂主)로서 봉안하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 시주자 32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 중에는 스님부터 일반인까지 그 층위가 다채롭다. 이 중에는 석이(石伊), 악삼(惡三)과 같이 성씨가 없는 천민들도 포함돼 일부 전문가들은 관음상이 “민간 신앙결사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부석사 관음상 논란 경과는?

관음사의 원봉안처가 서산 부석사임이 알려지자, 사찰은 신도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곧바로 받아들여져 2015년 7월 소유자 주장이 없던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만 일본으로 돌아갔고, 부석사 관음상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됐다.

이후 서산 부석사는 2016년 정부를 상대로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법은 “정부 보유 관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해 인도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검찰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다시 논란이 됐다.

이후 지리한 법적 공방은 7년여 간 이어졌다. 2023년 2월 1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서산 부석사가 서주(고려시대 지명)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 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뒤집어진 판결에 서산 부석사 사부대중과 시민단체들은 분노했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0월 26일 2호 법정에서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관음상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고려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은 인정했으나 “일본의 민법에 의해 쓰시마 간논지가 관음상을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돼 부석사의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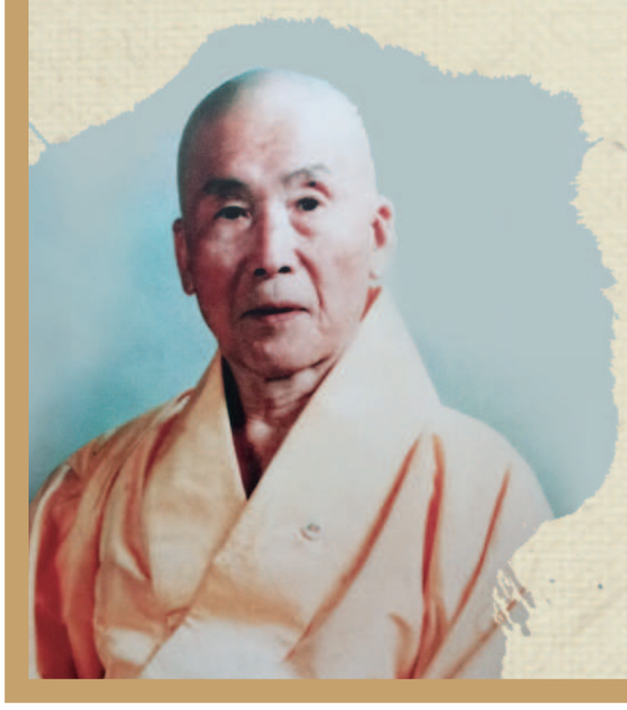
이에 현장에 있던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대법원은 무력·불법적 약탈을 합법화 해줬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이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패륜적 판결”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2024년 서산 부석사는 정부에 관음상을 부석사 봉안 후 100일 친견법회를 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간논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해 9월 간논지는 조건부 승낙했다.

올해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수장돼 있던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647년 만에 원봉안처인 부석사로 이운돼 100일이라는 짧은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신중일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다례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29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9(2025)년 6월 4일 수요일(음5월9일) 오전 11시
장 소 : 일붕선원 대법당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전 화 : (02)991-8175, 8904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봉행위원회

통도사, '사명당 유정' 연구 새 전환점 열다

5월 15일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서
우에다 교수, 1차 사료 최초 소개
〈선소고〉 〈녹원일록〉서 자료 발굴
대마도 체류 등 3가지 주제 구성
"외교승 '사명당', 신뢰 기반 활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5월 15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일본 사료 속 사명당의 활동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사진은 강연회 이후 기념촬영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5월 15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일본 사료 속 사명당 유정 스님(1544~1610)의 활동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은 일본 불교사와 사료 연구 전문가인 우에다 준이치(上田純一) 교수를 초청해 '일본 사료를 통해 본 사명당'을 주제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사명당 유정 스님에 관한 학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명당 현창 사업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 강연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수좌 명신 스님, 유나 영일 스님, 율주 덕문 스님, 강주 인해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노성환 교수(울산대)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하며 국난 극복에 기여한 사명당 유정 스님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일본 측 기록과 사료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사로 나선 우에다 준이치 교수는 일본 교토부립대학 역사학과 소속으로, 일본 중세사를 전공한 학자다. 그는 2007년 '사이쇼 조타이(西笑承兌)와 사명대사'라는 논문을 통해 양국 불교계 인물 간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 우에다 교수는 일본 승려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1537~1611)의 일기인 〈선소고(仙巢稿)〉와 녹원원(鹿苑院)의 승록 일기인 〈녹원일록(鹿苑日錄)〉 속 사명당 관련 기사를 새롭게 발굴해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작성된 1차 사료로, 지금까지 한일 양국 어디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명당 유정 스님의 일본 활동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대된다.

강연은 △사명당의 대마도 체류 시기 △교토에서의 일본 고승들과의 교류 △귀국 이후 주고받은 서신 교환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우에다 교수는 "사명당 유정 스님이 조선 포로의 쇄환과 기유약조 체결, 그리고 조선통신사 파견으로 이어지는 외교 정상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내에서 쌓아온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명당 관련 기록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 외에도 일본 각지의 다양한 문헌에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교승으로서의 사명당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료 발굴과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명당 유정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서 전공을 세운 데 이어, 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직접 담판을 통해 조선과 일본 간의 강화 교섭을 성사시키는 외교적 업적을 남겼다. 일본 교토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이쇼 조타이를 비롯한 일본 고승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으며, 그 영향은 당시 불교계뿐 아니라 유학자 사회 전반에까지 퍼졌다.

통도사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과 불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민족적 정체성과 불교사적 인물을 함께 조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일본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명당 유정 스님 관련 사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번 강연처럼 실증적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과거를 바로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는 길"이라며 "호국의 정신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계전 대선사 영결식…"평생 불교 발전에 헌신"

5월 15일, 부산 국청사서 엄수
계전 대선사 장의위원회 주관



금정총림 범어사의 원로 금옹당(金翁堂) 계전(戒傳) 대선사〈사진〉의 영결식이 5월 15일 부산 국청사에서 엄수됐다.

금정총림 범어사 금옹당 계전 대선사 장의위원회 주관으로 봉행된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문도대표 성남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영결법요와 함께 진행된 헌향 및 헌다에는 문도스님들과 내빈들이 참여해 대선사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영결사에서 "계전 대선사께서는 평생 범어사와 부산 불교를 위해 헌신하시며, 몸이 불편하실 때도 후학들을 격려하기 위해 늘 자리를 지키셨다"며 "이제 큰스님께서 사바의 짐을 내려놓고 열반의 길에 드시길 발원한다"고 추모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계전 대선사님의 원적 소식에 금정산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조차 오늘따라 슬픔을 머금은 듯 목이 멘다. 가슴이 저려오는 이 순간, 스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깊이 새긴다"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경지가 곧 열반이다. 본래 둥글고 밝은 지혜는 항상 우리 앞을 비추며, 오고 감의 분별조차 여읜 그 자리는 흔들림 없이 고요한 진리의 세계이다. 큰스님께서는 이제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 그 여여한 열반의 자리로 들어가셨다"고 법문했다.

문도를 대표해 성남 스님이 참가한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남 스님은 "큰스님의 뜻을 이어 이 도량을 잘 지켜가겠다. 언제든 스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은 국청사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계전 대선사의 법구는 국청사 연화대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엄한 거화가 이뤄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대중들은 우산을 접은 채 합장하며 눈물 속에서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1948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한 계전 스님은 1962년 동산 혜일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사미, 비구계를 수지했다. 평생 계율과 수행에 매진했으며 법랍 64년, 세수 77세를 일기로 5월 11일 부산 국청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구 위한 실천, 몽골에 푸른 희망 심다

홍법사 · 생명나눔실천부산본부 등
5월 10일~13일, 몽골서 나무심기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와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생명나눔실천부산본부 등 6개 단체가 5월 10~13일 몽골 아르와이헤르 및 울란바토르 일대에서 '2025 몽골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홍법사는 2009년부터 몽골 중부 반사막 지대에 '홍법사 동산'을 조성하며 매년 조림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대몽골공원'에 소나무 1500그루를 심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복원에 기여했다. 이번 봉사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대학생 5명이 동참에 눈길을 끌었다.

봉사단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불교의 총본산 간단사도 참배했다. 간단사 총무원장 짭잔더르찌 스님의 초청으로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산 스님은 "몽골 나무심기는 지구의 미래를 심는 일이다. 이 조그만 실천이 먼 훗날 커다란 숲이 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고 파라미타 "어르신, 건강하세요"

5월 6일, 지역 어르신 찾아
카네이션 달고 손편지 전해



부산 해동고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동고(이사장 현덕 스님)는 5월 6일 '제7회 홀로 삶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저녁 대접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해동고 파라미타 소속 학생 15명은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15가정을 방문해 꽃 한 송이와 손편지, 도시락을 전달하고 말벗이 됐다.

봉사에 참여한 이부윤 학생(1학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편지를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고, 임세헌 학생(2학년)은 "작은 선행이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오사, 지역 학생 40명에 장학금 전달

명정장학재단 주관 총 2060만원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학생 40명에게 총 20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자비 실천의 의미를 담은 이번 나눔은 학생들의 자립과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5월 5일 원오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는 명정장학재단 주관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초등학생 10명에게 각 10만원, 중학생 7명에게 각 30만원, 고등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2명에게 각 100만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불교동아리 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이 전달됐다.

정관 스님은 "아이들이 오늘 받은 장학금을 계기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
현대 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
일시 : 2025.5.31.(토) 장소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개회식 13:30 ~ 13:50 사회: 장미란 (삼성서울병원 연구원)
발 표 14:00 ~ 17:20 좌장: 박소진 (신한대학교 교수)
수용전념치료(ACT)와 불교 – 융합과 분화
발표: 케네스 펑 (토론토 대학교 교수)
토론: 최명희 (경북대학교 강사)
마음 공부와 자기 치유 –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발표: 최훈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토론: 이준엽 (약산애 한방병원 원장)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
발표: 김주현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김준형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폐회식 17:20 ~ 17:30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2025 International Hanmaum Science Symposium
Spiritual Practice and Healing in Modern Society
May 31st, 2025 Hanmaum Seonwon, Anyang, Republic of Korea
Opening Session 13:30 ~ 13:50 Moderator: Miran Jang (Researcher, Samsung Medical Center)
Presentations 14:00 ~ 17:20 Moderator: So Jin Park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nd Buddhism – Convergence & Divergence
Speaker: Kenneth Fung (Professor, University of Toronto)
Discussant: Myeong-Hui Cho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ind Cultivation and Self-Healing – Focusing on the Enlightenment of the Buddha
Speaker: Hoon-Dong Choe (Adjunct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unyeop Lee (Head, Yaksanae Hospital)
Issue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Speaker: Joo Hyun Kim (Professor Emerit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une Hyoung Kim (Lecturer,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Osan University)
Closing Session 17:20 ~ 17:30
YouTube Watch Live on Hanmaum Seonwon YouTube Channel
Download the Symposium Proceedings on HanSI Website (https://hansi.org)
Host: Hanmaum Seonwon Foundation Organizer: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maum Science Institute Hanmaum Seonwon Foundation

2200여 장병들 불제자로 거듭나다

조계종 군종교구,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돈관 스님 전계대화상 참여
"계율, 자유로운 삶의 약속"
군포교 기금 3000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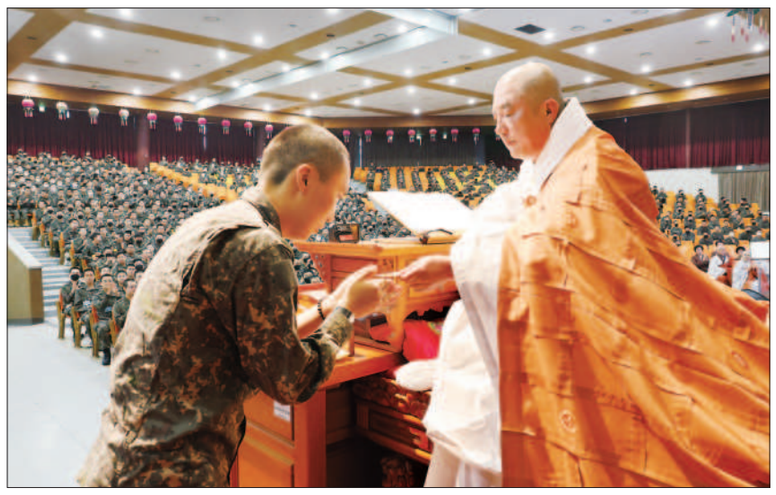
유재상 충청지사장

2200여 명의 군장병이 오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5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관에서 훈련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을 전계대화상으로, 제정 스님(동국대 서울 정각원장)과 법천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을 증명 법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됐다.

수계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연비, 오계 수계, 발원문 낭독, 법명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법회에 참석한 2200여 명의 훈련병들은 참회 진언으로 과거의 업장을 씻고 오계를 지킬 것을 서원했다. 동국대 석림회 동문 스님들과 전북 익산 군포교 지원팀이 연비 의식 등을 지원하며 행사에 힘을 보탰다.

전계대화상으로 법석에 오른 돈관 스님은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계율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완전한 삶을 향한 약속이며, 주인공으로서 지켜야 할 다짐"이라며 "이 약속은 군생활에서 나침반이자 지침이며 살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을 이날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며 훈련병들의 신행을 격려하기도 했다.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이 수계 대표 훈련병에게 수계증을 전달하고 있다.

법회 후에는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축하공연을 펼쳤고, 부처님오신날과 생일이 겹친 훈련병들을 위한 깜짝 생일 축하 시간도 마련됐다.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건학위원회 박기련 사무총장과 지정학 사무처장,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과 김용현 교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일주문 상량

5월 12일 상량식 봉행
"해탈로 나아가는 門"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 스님)이 5월 12일 대법당과 경내 일원에서 일주문 상량식과 화합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지원장 혜춘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혜밀 스님, 최종열 중부경남지원 신도회장, 정상윤 자문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상량된 일주문은 전통 다포양식으로, 기둥뿐 아니라 벽면과 처마 밑에도 공포(포작)가 정교하게 배치되는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하단이 좁고 상단이 넓은 배흘림기둥과 활주(보조기둥), 둥글게 말린 포작 장식 등은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장엄미를 더하며 도량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5월 12일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건물 전체는 높이 약 7m, 지붕 폭 3.5m, 기둥 둘레 85cm 규모이며 대지면적 5,251㎡, 건축면적 1014.46㎡, 연면적 1441.21㎡로 설계됐다. 상량보에는 대행 선사의 법문 중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걸림이 없어라"는 말씀이 새겨졌으며, 불사도감은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맡았다.

중부경남지원장 혜춘 스님은 "일주문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중생의 발원이 담긴 도량의 문이자, 오고 가는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첫 걸음의 문"이라며 "이 도량을 통해 후대들 또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비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길 서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대행 큰스님의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걸림이 없어라'는 말씀처럼, 이 도량이 누구에게나 열린 수행의 장이 되어 모든 이들이 마음을 내고 서원을 세우며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일주문 불사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수행의 장을 마련하고 도량의 정체성을 세우는 깊은 불사"라며 "그 안에 담긴 문양과 상징 하나하나가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잡고 서원을 일으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꽃잎이 흩날려 또 다른 꽃을 피워내듯, 이 도량에서 일으킨 공부와 서원이 서로 이어지며 새로운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의 원력을 더욱 단단히 세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홍제중 학생들 '주인공 마음의 힘' 배우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8~9일 산사문화체험
장학금 3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5월 8~9일 경내에서 밀양 홍제중학교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산사문화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산사문화체험은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항상 푸르게 살 수 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중심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첫째 날은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의 인사말과 함께 '주인공 마음열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어 김민선 강사의 '주인공 마음의 힘' 강의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해수관음보살 부처님 앞에서 촛불재가 열렸다. 학생들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뜻깊은 체험을 했다.

이튿날은 새벽예불로 하루를 시작해 통영의 자연 속에서 해맞이 산책을 했다. 참가자들은 햇살을 받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팀별 주인공 미션 프로그램'으로 협동과 소통, 내면의 자각을 함께 나눴다.

통영지원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뜻을 담아 홍제중학교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혜연 스님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마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안 각원사는 5월 5일 '제16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시원하시죠"…각원사 대불 목욕 의식

5월 5일 개산 49주년 맞아
'15m 아미타 부처님' 목욕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가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과 개산 49주년을 기념해 청동대불을 씻겨드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5월 5일 각원사 청동대불 앞에서 열린 '제16회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에는 주지 대원 스님과 성기만 신도회장, 김태훈 충청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대불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고 김영조 거사의 부인 정정자 여사가 참석해 축사하고 직접 목욕 의식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 부처님 목욕의식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탐욕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씻는 일이며, 몸과 마음의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정정자 여사는 축사에서 "50년 전 판잣집 같은 작은 방에 부처님만 계셨던 곳이 이렇게 큰 가람이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남편이 대불 불사를 주도했으나 생전에는 이를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해 오늘에서야 그 뜻을 대신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각원사 아미타 대불은 높이 15m, 둘레 30m, 총 60t 규모의 청동대불로 1977년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조성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신흥사, 무산 대종사 원적 7주기 다례재

5월 9일 경내 설법전서

한글 선시(禪詩)의 선구자이자 설악산문을 부흥시킨 선지식인 무산 대종사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5월 9일 경내 설법전에서 설악당 무산 대종사(1932~2018) 원적 7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로의원 도후·법등·원행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과 무산 대종사의 상좌 문석·득우·일원·삼조·일도 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용대리 만해마을 주민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셨던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영랑호 불교센터 건립, 문학관 조성 등 원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봉화산 정토원, '수광전 원불' 불사 시작

신도 참여형 신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주지 등명 스님)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수광전 원불 조성 불사'에 본격 착수했다.〈사진〉

5월 5일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봉화산 정토원은 원불 조성 불사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신도들에게 공식 발표했다. 수광전에 봉안될 원불은 김해시도예가협회 소속 김정태 작가가 제작을 맡았으며, 불자들이 각자 서원을 담아 봉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불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정신을 상징한다.



선건 봉화산 정토원 이사장은 "불자들의 발원이 모여 수광전이 자비와 깨달음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육군 35사단 위문

(사)붓다 봉사단과 간식 제공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사)붓다는 5월 11일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 법당에서 특별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윤금상 마이산 탑사 전국신도회장, 이재현 (사)붓다 봉사단장과 35사단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300인분의 음료를, (사)붓다 봉사단은 300인분의 스님 떡볶이와 닭강정, 사탕수수 주스를 장병들에게 제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소원정사, 학대 피해 아동에 선물

5월 12일, 보육시설 5곳에

광주 나눔도량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소원정사는 5월 12일 '안아줄게 도담도담기금'으로 마련한 선물을 광주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광주 동구 지역의 가정형 보육시설(그룹홈) 5곳에 전달했다.〈사진〉 해당 기금은 도계 스님의 사비로 조성된 것이다.



도계 스님은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사, 제5기 입문과정 수료·수계식

5월 11일, 51명 수료

서울 도선사 불교대학(학장 남일 스님)이 5월 11일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불교입문과정 제5기 수료 및 수계식'을 진행했다.〈사진〉



기본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총 51명(수요반 20명, 토요반 31명)은 이날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 오계를 수지했다. 태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지혜와 자비를 찾는 길을 제시해 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불교대학장 남일 스님은 "오계를 지키는 것은 몸과 정신을 건강히 하는 길"이라며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1964년 불법 반출 불상 4점, 환지본처

미국 아시아미술관서 반환
크메르 양식 13~14세기 작품
태국 내 미술사서 중요 자료
"문화재 보호 적극 진행할 것"


태국으로 반환되는 불상 4구. 사진출처=NNT

박영빈 객원기자

1964년 태국 동북부 유적에서 불법으로 도굴된 4구의 청동 불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로부터 태국으로 반환된다. 반환되는 성보는 불상 1구와 보살상 3구로 모두 크메르 양식의 13~14세기의 작품. 이 반가운 소식을 지난 5월 4일에 태국 정부 미디어 'NNT'가 전했다.

1964년에 불법적으로 도굴된 4구의 청동 불상들은 태국 부리람주 챠롬프라키앗 지구에 위치한 유적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오랜 세월 미국의 미술관이나 개인 컬렉터들의 소장품으로 전전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상들은 미국의 고미술상인 더글라스 래치포드의 계획 아래 도굴,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태국 문화부 예술국 측은 "해당 불상들에 대한 조사와 추적은 2017년부터 이뤄졌다"면서 "예술국 산하의 해외 태국문화재 환수위원회는 해당 불상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미국 국토안보 조사국(HSI)과의 제휴 아래 불상들의 반환 교섭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아시아미술관 이사회는 미술관 측에 반환을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4월 22일 이사회와 미술관 측은 불상의 반환과 함께 소장품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미술관 측은 "태국 예술국과 HSI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불상들이 불법적인 거래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하며 미술관 측은 등록명 '카오 플라 이 밧 2의 조각품'인 4구의 청동불상을 태국 측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불상은 1구의 여래입상, 2구의 관음보살상, 1구의 보살상이다. 태국 예술국은 이 불상들에 대해 "크메르 미술의 영향을 받은 13~4세기 '프라콘 차이 양식'의 대표적인 작례"라면서 "이 양식은 크메르 미술의 영향에서 넘어가 태국 고유의 양식이 꽃피기 시작하는 양식으로 불상들은 태국 내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예술국 측은 앞으로 LA 주미 태국 총영사관을 통해 HSI, 아시아 미술관과 협력하면서 반환을 위한 최종적인 법적·물류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불상의 최종적인 반환은 향후 몇 달 이내에 완료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회수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印불교도, 비하르 주지사 관저서 연좌시위

마하보디 사원 운영권 반환 요구
불응 시 시위강화…강경 항의도


비하르 주지사 관저 앞에서 연좌시위 중인 사부대중. 사진출처=ETV바라트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돌려달라는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약 350명의 사부대중이 비하르주 파트나에 소재한 주지사 관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 'ETV바라트' 등 현지 언론들은 불교계의 시위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온전히 불교도에게 돌려달라는 시위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이 시위는 인도 내 많은 불교단체들이 연대해 진행 중이며 단식 투쟁과 거리 행진 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4일 시위대는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출발, 3일간 110km의 도보순례 끝에 파트나의 비하르 주지사 관저에 도착했다. 선두에서 불상을 머리에 이고 걸은 반테 수실 팔스님은 "정부는 우리의 사원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힌두교도들이 사원 관리에 관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힌두사원의 관리인에도 불교도가 없는데 왜 힌두교도들이 마하보디 사원 관리에 참여하는가?"라고 기자들에게 시위의 골자를 설명했다.

시위대는 약 2시간 가량 관저 맞은편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했으며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주지사는 관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됐으나 시위대를 만나진 않았으며 대신해 비서진이 시위를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했다. 관저에서 이뤄진 접견에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전인도불교포럼(AIBF) 사무총장 아쇼크 라마 외 5인의 대표단이 참석, 비서진과 관련 담당자들에게 요구사항과 현재까지의 상황이 담긴 각서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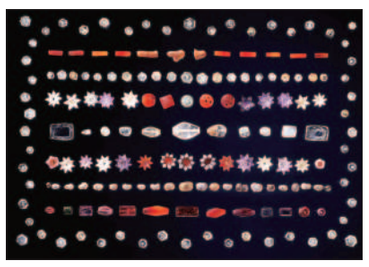
아쇼크 라마는 "비서진에게 우리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대해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주지사가 하루 이틀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관련 담당자에게 AIBF가 작년 9월부터 주지사에게 공식서한을 전달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표들 역시 "주지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AIBF와 인도 내 여러 불교단체들은 비하르 주 정부가 제정한 힌두교 중심의 보드가야 사원법을 폐지하고 불교성지와 주변 재산의 관리를 불교도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들은 "이 법이 종교적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아쇼크 라마는 "우리의 종교적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법률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소더비, 복장유물 경매 연기

인도, 334점 복장물 반환 요구
소유주 "정당한 상속물" 대립


소더비 경매에 올라온 피프라화 복장물 중 일부. 사진출처=소더비

진신사리와 함께 발견된 2000년 된 복장물 컬렉션 경매가 논란 끝에 연기됐다. 지난 5월 7일 '가디언지' 'BBC' 등 해외 주요 외신은 복장물 경매 연기 소식을 전했다. 인도 정부는 소더비 경매에 나온 복장물을 '불교 공동체의 양도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소더비는 경매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반환 요구를 넘어 제국주의 유산의 소유권과 동양 종교의 서구 소비 문화라는 두 축에서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경매에 나온 334점의 복장물은 자수정, 산호, 진주 등의 보석으로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 시기 진신사리와 함께 인도 북부 피프라와 불탑에 봉안된 복장물이다. 이 유물은 1898년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인 토지 소유주 페페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후 4대에 걸쳐 그의 가문이 소장해 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를 "식민 수탈의 산물"로 규정하고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현재 보석을 소유한 크리스 페페와 그 가족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상속'이라 주장하며 경매 수익 일부를 불교 기관과 인도 문화재 보존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는 이에 반발하며 보물법과 고대유물법 등 국내법에 따라 해당 유물의 국유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더비는 현재 "인도 정부와 판매자 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를 연기했다"고 밝혔고 인도 정부는 "구체적인 반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1300년 전 와불 아래서 보물 발견

부처님 부조판 2점 · 장신구 33점
불교 · 힌두교 종교 융합 시사


설법인을 갖춘 좌상(좌)과 삼존불 입상(우). 사진출처=태국 문화유산부

지난 5월 8일 고고학 전문 매체 '헤리티지 데일리'는 태국 불교 유물 출토 소식을 전했다. 해당 유물은 고대 동남아시아 불교의 신앙과 예술, 문화적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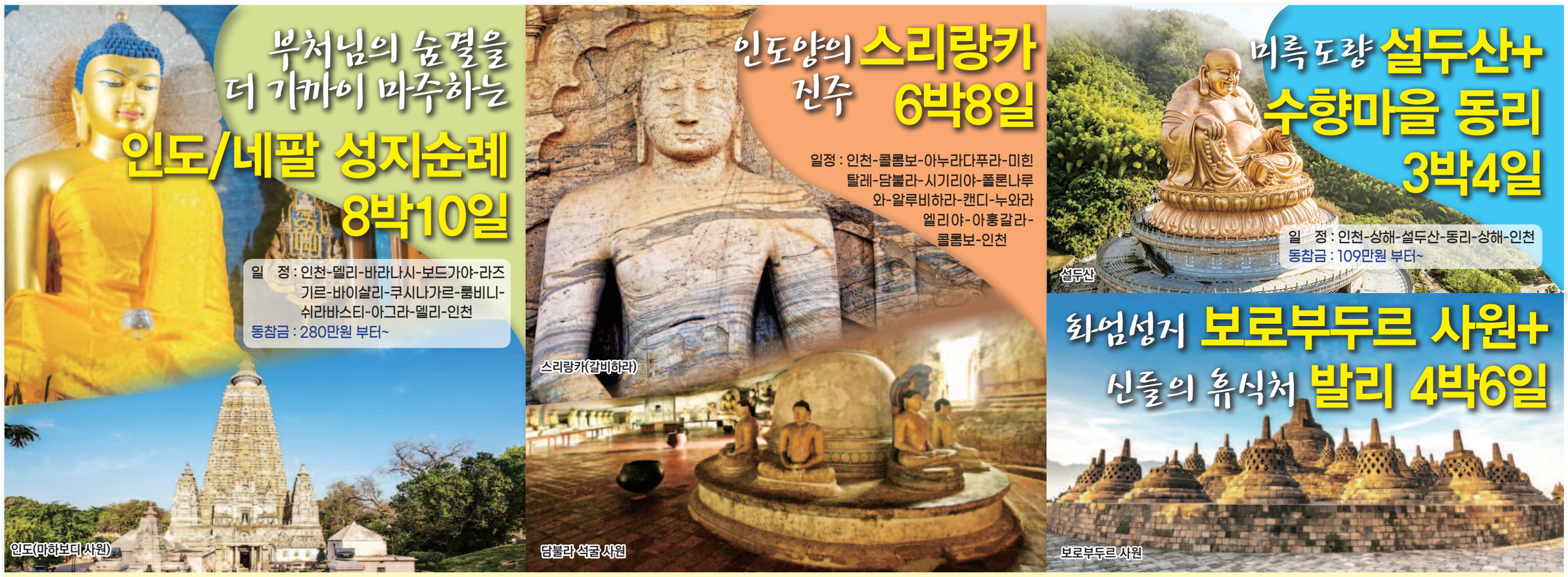
태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왓 탐마짝 쎄마람 사원은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존재했던 불교 왕국 드바라바티 시기부터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곳의 대표적 유물인 와불상은 람부리 왕국 라마라자왕 치세인 657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찰 내 와불상을 보존하기 위한 구조 보강 작업 중 지하 1.3미터 깊이에서 점토 항아리 하나가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의 정밀 조사 결과 항아리 안에는 금·은·청동으로 제작된 33점의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발굴된 유물에는 금 반지, 은 귀걸이, 독특한 형태의 청동 장식, 나선형 귀걸이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주목받는 유물은 납과 주석 합금으로 제작된 부조판이다. 너비 8cm, 높이 12.5cm인 이 판에는 연화좌에 결가부좌로 앉아 설법인을 갖춘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 함께 출토된 삼존불 부조판은 좌측 협시보살이 힌두교 창조신 '브라흐마'의 태국식 형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고대 동남아시아에서 불교와 힌두교가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예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대 타이 지역 불교 조형예술의 발전 양상뿐 아니라 고대 동남아시아 전역의 예술적 교류와 종교 융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석전 박한영 스님 독립운동 행적 발굴 실마리 찾았다

동국대 석전전서사업단 간담회서
新 발굴 '석전속시초' 내용 공개

석전 스님 임제종 운동 매진했던
1911년 광주감옥 투옥 사실 확인
"독립유공자 등재 단초 중요 자료"

韓中불교사 시 읊은 '영사시' 주목
사업단 7월 3일 관련 세미나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내 평생 만난 극심한 곤란은 세 번 있었다. 그 하나는 신해년(1911) 여름, 법망에 걸리는 액운을 만나 저 광산 감옥(광주교도소)에 들어가 귀신 무리가 돼 70여 일 갇혔다가 풀려난 것이다.(顧惟生平所遭甚難 爲三處也 其一去辛亥夏 令以鴻罹之厄 入佗光山圜扉中 爲鬼徒也 而消受七十殘日以得放)"

새롭게 발굴된 석전 박한영 스님(1870~1948)의 한시집 〈석전속시초〉 '안료원중잡감(眼療院中襍感)'13장 서문의 일부다. 1911년 당시 석전 스님은 임제종 운동에 매진했던 시기로, 스님의 회고는 공식 연보에도 없는 기록이다. 이는 이회광과 대립하며 임제종 운동을 펼쳤던 석전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 발굴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석전 박한영 스님 전서편찬사업단(소장 김상일, 이하 석전전서사업단)은 5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전 스님 전서 편찬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석전석시초〉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석전 스님의 시집으로는 〈석전시초〉가 있고, 문집으로는 〈석전문초〉가 전해진다. 〈석전시초〉(동명사刊, 1940)는 석전 스님의 칠순을 맞아 최남선이 엮고 연활자본으로 간행한 시집으로 약 600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새로 발굴된 〈석전속시초〉에는 1939~1945년 지은 한시 201제 405수가 수록됐으며, 기존의 〈석전시초〉 600여 수와 합하면 석전 스님의 한시 총량은 1000여 수에 이른다.

특히, 석전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을 발굴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석전속시초〉 '안료원중잡감'13장은 석전 스님이 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며 고생했던 소회를 담은 7언 절구의 한시다. 한시의 서문에서 석전 스님은 1911년 광주 감옥에서 70여 일간 투옥됐던 사실을 술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진 석전전서사업단 팀장(불교학술원 부교수)은 "석전 스님은 자신의 인생에 세 번의 고통이 있었음을 술회했는데 첫 번째가 1911년 광주 감옥 투옥"이라며 "당시 광주 감옥에는 남자 300명 여자 300명 등 600명



근대불교 선지식 석전 박한영 스님(1870~1948)의 진영. 선운사성보박물관 소장.


1911년 광주 감옥에 수감돼 고초를 겪은 사실을 술회하는 석전 스님 한시의 서문 중 일부.

이 투옥된 것까지는 확인됐는데 석전 스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70여 일간 구류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투옥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회광의 원종과 대립해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석전 스님이 중심이 됐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임시 관장을 맡은 것이 강조돼 석전 스님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면서 "석전 스님은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독립운동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에 수훈되지 못했다. 이번 자료는 석전 스님을 독립유공자로 등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석전속시초〉에 수록된 한시들의 특성도 소개했다. 영사시(詠史詩)의 경우 한국과 중국불교 역사를 시로 노래해 눈길을 끈다. 영사시를 담아낸 것은 '영시사(詠詩史)' 7장과 '고사시관(故事詩觀)' 45장이다. '영시사'는 불교시의 역사를 읊은 한시로 중국 시인 구양수·주돈이·사공도·두보·왕유·도연명 등과 불교시의 관련성을 한시로 품평했다.

'고사시관'은 중국과 한국의 불교사를 인물 중심으로 펼쳐낸 한시들이다. 중국불교 인물 24인, 한국불교 21명을 표제로 했다. 중국은 불경을 싣고 온 마등과 축법란부터 명나라 우익에 이르며, 한국은 아도 화상부터 조선의 초의·복초 스님 등까지 불교사와 고승의 행적을 노래했다.

선 수행 과정을 열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 '십우도'를 시적으로 해석한 '십우송(十牛頌)'도 주목할만한 작품이다. 5언고시 10수, 7언절구 10수로 구성된 '십우송'은 만암 스님의 권유로 1943년 지은 것이다.

김상일 석전전서사업단장(한국문학연구소장)은 "석전 스님은 한시를 쓸 때 한 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십우송에서는 선사상의 깊이를 알 수 있다"면서 "그동안 알려진 경허, 만해 스님의 십우송에 석전 스님의 십우송을 더함으로써 근대 선시의 자료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물들을 시적으로 형상화 한 영사시와 근대 선지식들과 석전 스님의 교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들도 다수 확인된다.

한편, 석전전서사업단은 7월 3일 동국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규 발굴한 〈석전석시초〉에 대한 상세한 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땅설법과 세계 불교 속강 면면 살피다

땅설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빅터 메이어 등 석학 강연
인도, 동아시아 속강 조명

'속강(俗講)'은 중국 당나라 중기 이후 스님들이 속인을 대상으로 도심에서 행한 설법이다. 문자를 몰랐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경전의 내용을 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래와 춤, 연극 등의 예술과 기예들이 적용됐다. 이는 송나라에 이르러 대중화 되며 강창 문학(講唱文學)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 스님)에 전해져 오는 '땅설법'은 '속강'의 전형으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불교 속강이다. 이 같은 '땅설법'과 세계 불교 속강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땅설법학회(회장 김용덕)는 5월 5일 삼척 안정사에서 '세계의 속강과 땅설법'을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는 인도와 동아시아에 전해지는 불교 속강의 연원과 전개 양상들을 살폈다. 특히 빅터 메이어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그림과 함께하는 이야기 역사: 인도에서 유라시아 전역까지'를 통해 중국 민간 문학의 한 장르인 '변문(變文)'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속강 문화가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전해졌는지를 살폈다.

메이어 교수에 따르면 변문의 '변(變)'은 불교의 본체론에서 말하는 인간·동물 등 다양한 형상과 장면의 현현을 의미하고 이러한 변신의 현현이 두루마리나 벽화 등에 묘사됐다.

메이어 교수는 "진정한 '변(變)'은 민간 문학이자 그림 이야기의 한 형식으로, 백화문, 설창, 삽화가 결합된 특징을 가진다"면서 "'변의 공연'은 그림을 활용한 구연(口演) 형식의 서사 공연이며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미네 가즈아키 일본 릿쿄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관심 십계만다라도와 에토키 : 감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홍철 우석대 교수가 '고대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시각적 강창 연행',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땅설법 법구의 역사성과 개방성 : 다양한 교구 활용을 중심으로',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땅설법 〈수달기정사품〉의 교리·신앙적 정합성'을 각각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 "우리가 멈춰야할 때"

10일 의정부예술의전당서 초연
진우 스님 "'멈춤'으로 자각을"

(사)상월결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문화공연법회를 선보였다.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는 5월 1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PAUSE' 초연 무대를 펼쳤다.〈사진〉


사진 제공=상월결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한 생각 멈추면 온 우주가 고요해진다'는 이번 문화공연의 주제는 '선명상'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면서 "잠시 멈춤은 곧 깨어남의 시작이다. 불자 뿐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많은 이들이 무대를 통해 자기 삶 속에서 '멈춤'을 통해 고요한 자각에 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멈춰야 할 때:PAUSE'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NONSTOP:무명의 순수 △SCREAM:혼돈과 파열 △PAUSE:쉼의 문턱 △PLAY:해탈의 길로 구성됐다. 어린시절 진심으로 웃고 뛰놀던 순수한 기억이 디지털에 잠식되는 여정 속에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분열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멈춘 순간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한 후 회복하는 이야기가 담겼다.

소리꾼 최예림, 가수 길대호, 아역배우 문성구, 무용수 김여주를 비롯해 상월비보이, 상월청년합창단, JH콰이어 등이 함께했다.

공연은 △6월1일 구미문화예술회관 △6월14일 논산훈련소 △6월21일 부산시민회관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제정…"불교학에 활기를"

5월 20일~9월 20일 접수
첫 주제 '의상을 말하다'
10월 추계학술대회서 발표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불교학 인재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상을 제정했다.

한국불교학회는 5월 14일 서울 중구 월정사 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학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한국불교학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우수 논문들을 공모·시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학회에는 한암상, 탄허학술상, 성운학술상 등 총 4개의 학술상을 운영하게 됐으며, 불교계 학회 중에서 가장 많은 학술상을 운영하는 단체가 됐다.

새로 제정된 '한국불교학회 학술상'은 매해 다른 주제를 선정해 우수 논문들을 공모·시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모자격은 한국불교학회 정회원으로 불교학 분야 석사 이상 연구자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논문 공모 편수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술상 시행 첫 해인 올해 주제는 의상 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의상을 말하다'로 정했다. 논문 접수는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뤄지며, 수상 발표는 9월 30일 이전 개별 통보된다.

시상식은 10월 24일 예정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학술대회에서 수상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또 학회 학술지인 〈한국불교학〉에 특집으로 게재된다.

신중일 기자

불교상담학회, '인생 각본과 바사나' 워크숍

5월 24일 동국대 WISE캠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오는 5월 24일 오전 10시 동국대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501호에서 '제2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내면 성장과 치유: 교류분석과 불교상담의 만남'을 주제로, '인생 각본(Life Script)과 바사나(vasana) 알아차리기'를 중심으로 한 심화 탐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내면의 나를 초대하기'와 '자아상태와 무아상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론적 기반을 다진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인생 각본과 바사나 개념을 이해하고, 감정적 태도와 삼독(탐·진·치)에 대한 통찰을 확장하는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일반 참가자 10만 원이며, 특임이사는 5만 원, 일반이사는 7만 원, 학회회원은 8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전화(010-3465-7107)로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전통예술·사진 진흥 공모전 연다

예술공모, 10월 15~16일
사진공모, 9월 17~24일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와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과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회 천태예술공모대전 공모 부문은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공예 △민화 등이며, 작품 접수 기간은 10월 15~26일(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작품은 서울 관문사(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2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말 경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은 12월 3~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 △사찰 및 불교정신을 담은 작품 △천태종 관련 작품 등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 시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록한 파일을 작품과 함께 이메일(cheontaecmb2@kakao.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0월 중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02-723-1559

신중일 기자

반야불교문화硏 제15회 반야학술대상 공모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대종사)이 제15회 반야학술대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

반야학술대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최근 7년간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에 열린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응모방법은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반야학술대상은 불교의 지혜인 '반야(般若)'의 가치를 현대 학문 속에 조명하고자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학술상으로, 국내 불교계의 권위 있는 연구 시상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4~5/2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이뭐꼬	퇴옹성철	장경각
2	제발 걱정하지 마라	진우	도서출판동국	7	진우스님의 금강경 강설	진우	김영사
3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8	동자승 컬러링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4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자현	불광출판사	9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포레스트북스
5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10	부처님 법공부	진옥 설법 범여 정리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6	미얀마아라한의 수행 : 9위빠사나선사들의 법문 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꽃한테 들어라 : 1994~2009법정스님 법문기록	법정	지식을만드는지식
3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8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원제:붓다의 가르침)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9	어싱 :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5	위없는 지혜 : 금강경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사유수	10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김형중	운주사

붓다를 읽는 두 가지 시선

부처님오신날 즈음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되돌아보게 된다. 깨달은 자, 붓다의 일대기에서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구도자이자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인 '혁명가'의 면모를 읽어냈고, 동명 스님(서울 불광사 주지)은 신화 속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붓다와 그 안에 담긴 민중의 염원을 읽어냈다. 두 개의 다른 시선이지만, 혁명가 붓다와 신화 속 붓다가 이 시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같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혁명가 붓다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 1만7800원

법륜 스님, 시대 뛰어넘은 '혁명가' 주목
'누구든 깨달으면 붓다'라는 혁명적 선언
"깨달음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누구든지 깨달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

2600여 년 전, 인도 사회는 신분 계급에 따른 차별이 철저했고 여성은 평생을 남성에게 얽매인 존재로 살아야 했다. 개인의 인권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붓다는 그 당연함을 거부했다.

"세상에는 네 개의 계급이 있다. 그러나 내 법 안에서는 하나다." "여성의 출가를 허락한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성차별과 계급 차별은 '당연히' 타파해야 할 폐습이지만, 당시 인도 사회에서 붓다의 이러한 선언은 기존 사회질서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혁명'이었다.

〈혁명가 붓다〉는 법륜 스님이 한평생을 구도자이자 혁명가로 살았던 인간 붓다의 삶을 그려낸 책이다. 왕자 고타마 싯다르타의 탄생부터 열두 살 때 농경제에 참가하며 삶의 의문을 품게 되는 과정,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궤적, 깨달음 이후 전법의 삶과 열반까지를 천천히 짚어가며 붓다가 당대의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혜를 펼쳐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법륜 스님은 "붓다는 당시 인도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평등, 평화와 자비의 말과 행동을 보여 준 진정한 혁명가였다"며 "물리적인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는 정신적 혁명가"라고 정의한다. 그리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붓다는 우리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깨달음 이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 사회개혁운동을 이끈 암베드카르의 신불교운동, 환경운동과 자원봉사 정신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 베트남 출신 틱낫한 스님의 반전 평화 운동 등을 예로 든 법륜 스님은 "붓다가 인도 사회에서 여러 사상이 혼재한 가운데 그것들을 융합해 새로운 길을 열었듯이, 새로운 불교 운동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해 미래 문명에 필요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붓다의 삶에서 보듯 해탈과 열반, 즉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며 "독자들도 '혁명가 붓다'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간 붓다와 영웅 붓다를 조명한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붓다의 신화
동명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2만원

동명 스님, 신화 속 '영웅 붓다'를 만나다
전생담·탄생 설화 등에 담긴 민중의 염원
"내면의 악당 물리치는 일곱 가지 방법"

'신화를 걷어낸 인간 붓다'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모습이라는 또 다른 '신화'가 있다. 하지만 동명 스님(서울 불광사 주지)은 오히려 신화 속 '영웅 붓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화화된 붓다의 생애에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붓다의 신화〉에서 신이(神異)한 전생담과 신비로운 출생, 원력을 세운 성장기, 마왕의 유혹과 극적인 깨달음, 영웅적인 교화의 순간 등 29가지 신화를 재료 삼아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전한다.

먼저 붓다가 마지막 전생을 마치고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선택해 태어났다는 이야기에서는 "붓다가 원력에 따라 명료하게 자신의 다음 생애를 선택했듯, 우리도 '업력'이 아닌 '원력'에 따라 다음 생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붓다의 생애 중 가장 신화적인 부분인 탄생 설화도 빼놓을 수 없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붓다는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북쪽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다. 이에 대해선 "붓다의 탄생 신화는 우리에게 붓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칠각지(七覺支)를 열심히 실천해 육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명 스님은 "할리우드의 영웅은 강력한 악당이 있어 탄생하지만, 붓다의 신화는 외부의 악당이 아닌, 우리 내면의 악당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는 붓다의 신화를 통해 내면의 악당을 물리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원력을 굳건하게 세워라 △모험하고 도전을 주저하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 등의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스님은 "붓다의 신화는 이러한 일곱 가지 교훈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교훈 이상의 재미와 의미를 선사한다"며 "이 책이 붓다의 신화에 대한 의미 있는 작업을 향한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새로 나온 책

틱낫한의 상실과 슬픔 치유법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틱낫한 지음
권선아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만9000원

"죽음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살아갈 힘을 얻는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치유를 담은 책이다. 스님은 소중한 이가 세상을 떠나도 그의 말과 행동은 나와 내 주변인, 구름과 자연 같은 우주 만물 속에 남아 항상 내 곁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와 타인,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기 돌봄' 수행법을 알려준다.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추천사에서 "스님의 글은 천지가 무너져 내린 듯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다"고 말한다.

페마 초드론의 1:1 명상수업



일단 앉아볼까요
페마 초드론 지음
이혜진 옮김
한문화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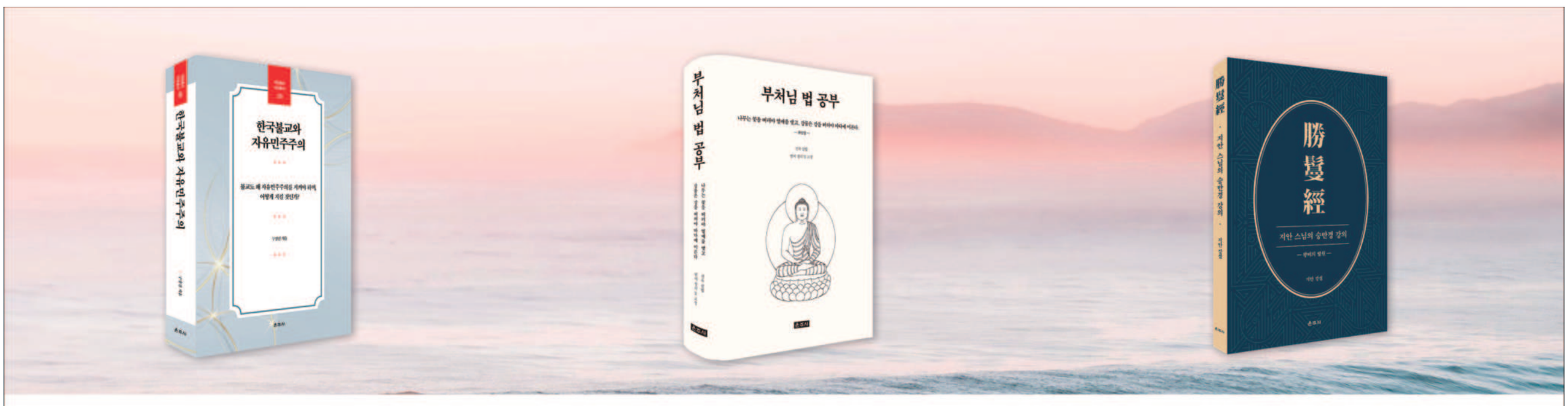
최초의 미국인 티베트불교 비구니인 페마 초드론이 초보자들을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람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삶의 기반을 잃지는 않을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페마 초드론은 "어떤 책이나 방법도 이 불안에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명상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처음 명상을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물과 기본 자세, 호흡하는 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명상 수련의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간다. 마음챙김과 바디스캔으로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친절한 화두 명상 지침서



당신이 길입니다
김준영 지음
민족사
1만8500원

봉화 축서사 참선 법회에서 17년째 초심자반 안내를 맡고 있는 저자가 쓴 참선 안내서.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이 집필을 권하며 제시한 "누구나 읽을만하고 참선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입문부터 화두를 해결할 때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눠 단계별 수행 포인트, 마음의 상태와 의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행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저자는 "선은 '나에게 없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그대로가 행복'임을 깨닫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에서의 깨달음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시로 엮은 '금강경' 수행의 고갱이



나는 어디로 가나
법산경일 스님 지음
백산출판사 / 2만원

법산 스님, 8년 만의 두 번째 시집
시 120여 편과 직접 찍은 사진 담아
〈금강경〉 10만독 수행…'비움의 철학'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5월 14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시집을 소개하는 법산 스님.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무엇인가 / 하얀 눈 덮인다고 큰 산이 가려지나 / 검은 구름 걷히는 날 옛 거울 빛나리라."

–시 '나는 어디로 가나' 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금강경〉 10만독(讀) 수행을 해오며 얻은 깨달음과 자연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은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를 출간했다. 지난 2017년 첫 시집 〈나는 누구인가?〉를 펴낸 지 8년 만이다.

5월 14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법산 스님은 첫 번째 시집에 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백장암에서 안거할 때, 포행하다 문득 제 그림자를 사진으로 찍어 봤어요. 그림자를 보고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런 너는 누구냐'는 되물음이 생기더군요. 그 물음에 답하며 쓴 시로 등단하고 시집을 냈어요. 그 이후로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두었던 시와 제가 찍은 사진을 담아 두 번째 시집을 펴내게 됐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나〉에 실린 시는 주로 함양 남산사 고경선원과 양산 통도사에서 쓴 것들이다. 아침 공양길에 만난 새 한 마리와 연잎에 내려앉는 벌, 활짝 핀 꽃봉오리와 때가 되어 떨어진 도토리들…. 자연이 내보이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시와 사진에 담은 법산 스님은 "자연은 본래 공적(空寂)하여 / 만물을 늘 새롭게 하며 / 심성은 깊이를 알 수 없으니 / 모든 생명을 즐겁게 할 수 있다네"라고 노래한다.(시 '적정의 자성' 중에서)

자연과 함께 스님의 시를 관통하는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2001년에 〈금강경〉 10만독을 서원했다. 선방에 방부를 들였을 때도 8시간 정진 후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은 지금까지 7만6400독을 성만했다.

"날마다 금강반야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금강경〉을 독송하고 푸른 산을 보면서 산색에 물든다"는 스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한 마디로 '비움'"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찰나도 머물지 않는 시간 / 순간도 멈추지 않는 변화 / 무엇을 탐착하랴 / 오직 형상 없는 그 마음 / 오직 걸림 없는 청정심 / 변함없는 내 자성"을 노래한다.(시 '순간의 소유' 중에서)

조계종 법계위원장이기도 한 스님은 "'대종사'라 하면 다 타버린 재처럼, 탐진치를 모두 여의고 맑고 향기로운 얼굴이 되어야 한다"며 "최근 포교와 전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스님들이 수행을 올곧이 한다면 진리의 법등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당부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저자 **법산 스님**은?

15세에 남해 화방사로 출가해 덕산화상을 은사로 염불과 교학을 수학하고, 통도사 극락암 경봉 대선사를 법사로 입실건당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 과정까지 이수한 후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2011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정각원장, 불교문화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인도철학회장, 정토학회장 소임을 맡았고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동산반야회 법주, 조계종 법계위원장, 영축총림 통도사 선덕으로 수행하고 있다.

서울 사찰에서 찾은 조선 불교 이야기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
황윤 지음
책읽는고양이 / 2만4800원

역사 여행 에세이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를 선보여 온 황윤 작가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사찰 순례에 나섰다. 원각사와 흥천사, 봉은사 등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에서 숭유억불의 시대를 견딘 조선 불교의 현실과 생명력을 읽어내는 여정이다.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은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출발해, 보신각에서 300여 년간 나라의 시간을 알렸던 종이 원래 있었던 원각사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각사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탑골공원에서는 세조의 각별한 불교 사랑과 애달픈 폐사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 흥천사와 봉은사, 승가사, 옥천암, 호국지장사, 달마사, 조계사 등을 순례하며 조선 불교의 면면을 살핀다.

전작 〈나 혼자 경주 여행〉과 〈나 혼자 백제 여행〉에서 '탑'으로, 〈나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으로 불교 이야기를 펼쳤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불화와 불상'에 주목한다. 조선 전기 불화인 '석가탄생도(일본 후쿠



서울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 현대불교 자료사진

호카 혼가쿠지 소장)'와 '석가출가도(독일 퀼른동아시아미술관 소장)'를 비교 감상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팔상도(18세기)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와 불화·불상 보는 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사찰에 관심이 많아도 아직 불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찰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이 책을 통해 서울 사찰들의 역사와 조선 시대 불상·불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빛나는 도시 서울에 자리한 고찰 속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며 "이 책을 통해 선악과 호오(好惡)를 가르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고락(苦樂)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서울 사찰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불법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성진 스님의 40가지 '인생 방편'



절 마당에 앉아
성진 스님 지음
김영사 / 1만7800원

절 마당에서 나눈 고민과 답변 모아
"모두에게 '나다움'의 봄꽃이 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성진 스님이 행복한 삶을 위한 마흔 가지 '인생 방편'을 소개하는 책 〈절 마당에 앉아〉를 펴냈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절 마당'은 스님이 머무는 남양주 성관사의 마당이다. 이곳은 저마다의 질문과 고민을 안은 이들로 늘 북적인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요?" "남과 비교하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절 마당에서 스님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질문에는 함께 길을 찾으며 마음을 나눴다. 그렇게 오고 간 대화들을 씨앗 삼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성진 스님은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괴롭다"는 사람에게 '화'라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워킹맘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선택하는 길이 곧 옳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라"고 당부한다. 각 장 사이에는 마음에 새겨둘 경전 구절과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를 사랑할 때,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부디,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절 마당에 앉아〉는 결국 '나답게' 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요하게 건너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스스로를 존중하고 세상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진 스님은 말한다.

"짧은 인생에 주저할 겨를이 있는가?"

이 우주, 모든 존재를 위한 진실의 노래
강직한 지혜와 용기를 담은 깨달음의 찬가

다시 한 번, 진정한 자유를 향해!

성聖과 속俗을 오가며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감각적인 사유의 언어로 길어 올린
자현 스님의 두 번째 감성 법문

한 수행자의 진지한 자기 고백은 돌아서면
잊게 되는 멋들어진 힐링의 문장이 아니다.
대신 단단한 바위와 같은
강직한 지혜와 용기의 말이다.
그로써 험한 세상의 풍파에 멈춰선
우리를 다시금 전진하게 하는 것이
이 책에 부여된 소임이다.

자현 지음 | 248쪽 | 양장본(올컬러) | 18,000원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신화 속 붓다가 들려주는 내 인생의 주인공 되는 법!

괴로움과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단 하나의 이야기!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완벽한 삶의 지혜

붓다의 신화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고통의 순간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순간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
천신과 마왕,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들 사이에서 자신의 힘으로
중심을 다잡았던 영웅 붓다.
신화가 된 붓다의 예리한 통찰이
마침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 준다.

동명 지음 | 304쪽 | 20,000원

불교 기도문
매 순간 행복해지는 마음 습관
304쪽 | 17,000원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기도하게 될 때가 있다!"
매일의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까지
모든 날을 위한 생활 불교 기도문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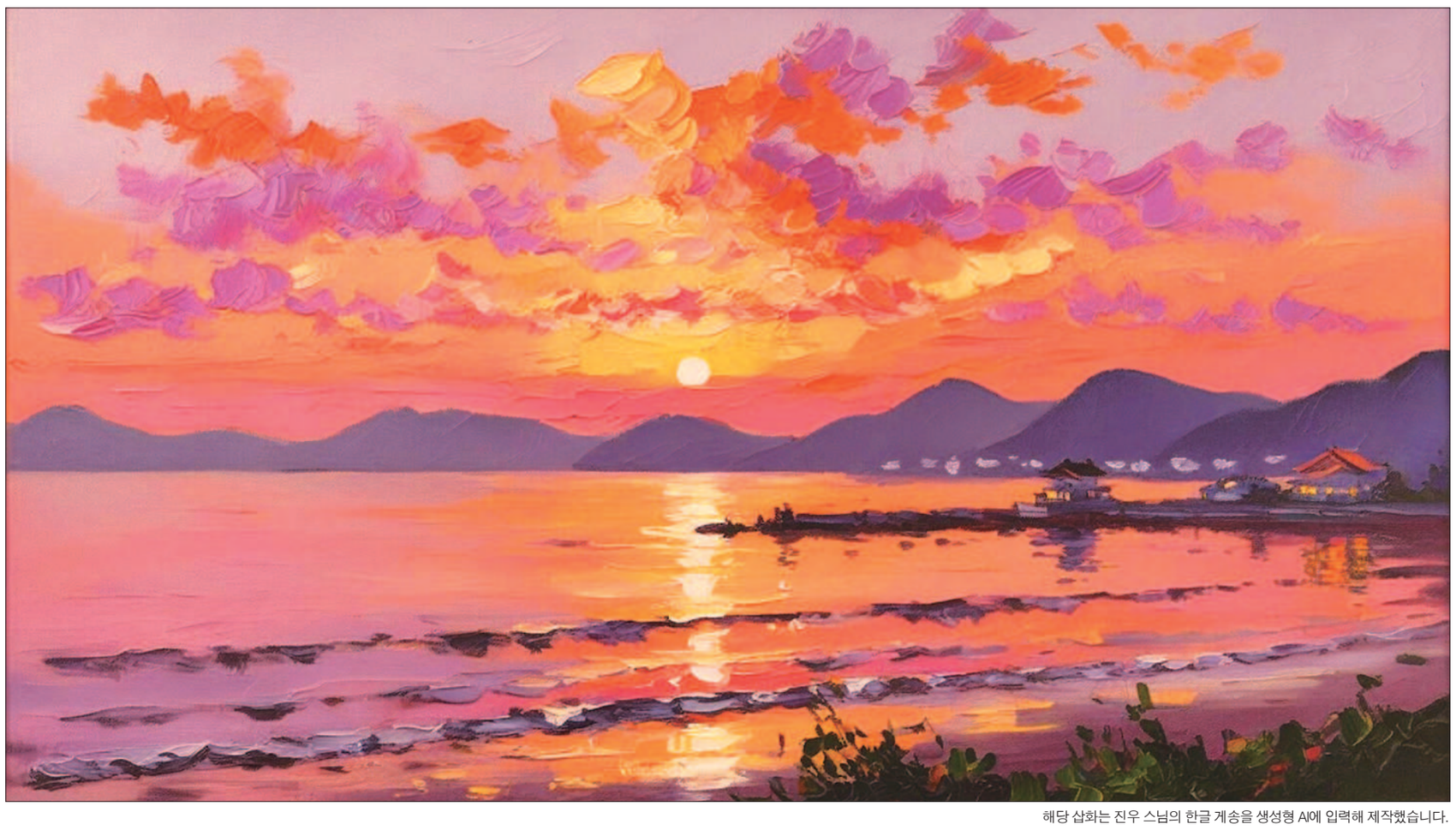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⑲ 분별심 내려놓는 법



▶한줄 요약
분별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선과 보시, 정진 또한 꼭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마음의 분별을 내려놓고, 여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써 분별을 내려놓아라

마음 속에 분별심이 생기면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하게 돼
분별심 없애려면 '기도' 중요
기도 통해 여여한 마음 갖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서산에 해지면 눈 감고 쉬면 되지
밤새도록 찾은 들 크게 뜬 눈 괴로워.
아침이면 저절로 해 뜨면 보일 것을
모든 일 때 있으니 안 보이면 기다리게.

인과법(因果法)을 모르면 불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주관적인 것이니, 우선 옳다 그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 스스로 괴로워지게 됩니다."

옳은 것을 집착하면 할수록 그른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되어 스스로 마음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별심(分別心)이 생기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도 분별하게 되고, 사람들의 행동 또한 분별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내 마음이 복잡한 인과(因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인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것은 옳고 해가 지는 것은 그르다 할 수 없듯이, 상대의 말과 행동 또한 인과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행동도 있고 저런 행동도 있는 것일 뿐인데, 여기에 옳고 그름의 시비를 붙이면 나 스스로 마음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혹여 상대방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연의 때가 되어 그러한 것이니, 그 행동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 또한 인과의 때가 되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업(業)의 인과에 의해 돌아가듯이, 사람의 행동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오듯, 인간의 말과 행동도 인과 인연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분이 나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인과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상대의 업(業)에 따라 자업자득(自業自得)할 것이며, 나 또한 나의 업에 따라 자업자득하게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시비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굳이 간섭하여 새로운 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선과 보시, 정진 또한 꼭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마음의 분별을 내려놓고, 여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밤님 맞는 하늘님은 서산 햇님 배웅하고
별별의 반짝 별님 하늘 모래빛 뿌리네.
휘영청 그윽 달님 별빛 깜빡 졸게 하고
새벽 동튼 햇살님은 달빛 수고 덜어주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만든 내용은 아니지만 햇빛과 별빛, 달빛의 조화로움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다른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지만, 새로운 물이 떨어지며 폭포는 여전히 보존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람 불어 파도 일지만 바다는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바람이나 파도가 아닌,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색계(물질계)와 심계(정신계)는 모두 인과를 거듭 반복하며 생로병사와 성주괴공, 생주이멸의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일에는 오르내림과 뜨고 앉는 리드미컬한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조 혜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펄럭이는 깃발은 바람 탓도, 깃발 탓도 아닌 우리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있기도 없기도, 보이기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과 마음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분별심(分別心)에 빠져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과 인과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것을 탓하지 않듯,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인과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이를 멈추고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선멈춤 선명상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짧은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다시금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선멈춤 명상을 통해 나의 내면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인과의 흐름에 따라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면 마음에 불필요한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늘은 공업과 동업, 자업이 요동치는 복잡한 날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이 또한 나의 업(業)의 모습이라 여기며, 기도로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 腹藏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을 예경의 대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
불상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되는가?

복장 의식과 점안 의식
그 신비로운 절차의 모든 것을 밝히다.
단순한 미술품이 부처님이 되기까지
타임캡슐처럼 봉안된 불복장 속
당대 문명의 결정체를 만나다.

佛

불복장의 비밀
불교의식 너머 상징의 세계까지
경원 | 400쪽 | 35,000원

현재 금산 극락사 회주, 공주 동학사 주지, BTN 불교티비 자문위원, 한국불복장연구소 소장으로 수행과 전법에 힘쓰고 있다. 수덕사 견성암에서 출가,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견성암·대성암·약수암 등 22안거를 성만하였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대 초반부터 청봉당 혜묵 스님 하에서 불복장 전반을 수학하였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화두 명상의 길



간화선의 핵심을 질문과 화답으로 풀어낸 실천 지침서
그 깨달음은 문답 속에서 시작된다.

선禪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곧 길입니다.
당신은 문답을 따라가며
어느 순간 '아!' 하는 깨달음과 함께,
본래 자기 안에 있던 '길'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길입니다
친절한 화두 명상 지침서
달마 김준영 | 312쪽 | 18,500원

간화선을 기반으로 티벳의 족첸과 포와, 마하시, 술륜, 쉐우민 전통의 위빠사나를 섭렵하였으며 현재, 필요에 따라 간화선, 위빠사나, 티벳명상 등을 융합해서 수행을 안내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화두 외의 방편까지 폭넓게 쓰시는 봉화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축서사 토요정진회 참선 법회 초심자반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그대는 자비보살

이화순 조계종 포교사



봉사 경력 20여 년의 이화순 포교사는 인연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실천한 20여 년 봉사인생…“남 도우면 나도 행복”

불교 인연 맺고 나에서 타인 중심 변화

2004년 포교사 품수 후 봉사활동 본격

목욕 · 배식봉사부터 법회 지원 등 ‘다양’

힘들 땐 30초라도 멈추고 마음 내려놔

10년 전부터 〈금강경〉 등 사경도 시작

SNS로 부처님 말씀 나누며 ‘포교’ 열심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아부지(아버지),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니도 잘 지내셨죠?”

봉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화순(66) 조계종 포교사의 인사에 조용하던 공간이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병실 문 너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왜 이제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익숙한 듯 그의 손을 맞잡은 어르신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익숙한 풍경이다. 매주 2~3번씩 반복되는 장면이지만, 그는 늘 처음처럼 정성을 다한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는 어르신들의 말 한 마디가 숱한 날들 그의 발걸음을 병원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봉사는 그의 일상이 됐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소외계층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불교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1982년, 신심 깊은 불자 남편을 만나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함께 사찰을 찾아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점차 불교의 사상과 교리에 매료됐지만, 막상 불교를 설명하자니 아는 게 없는 것 같았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곧바로 사찰 불교대학을 찾았다. 기초교육을 받고 불교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환희심이 솟고 행복감에 벅찼다. ‘사성제’ ‘팔정도’ ‘인과법’ 등 불교 용어를 하나둘 알아갈수록 그의 인생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엔 성격이 모나고 결벽증도 있었어요. 깔끔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불교가 알려줬어요. 모든 집착이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조금씩 내려놓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나 하나 편하겠다고 주변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병원법당에서 신입 포교사들에게 목탁 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화순 포교사는 군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상장을 받았다.



환자가 선물한 종이 발우. 목탁을 담아 보관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에서 이웃돕기 모금을 하고 있다.



대학병원 병원법당 개원 1주년 행사에서 기념촬영 모습.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말을 꺼내기 전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게 됐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그는 배움에만 머물지 않았다. 불교가 자신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를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솟았다. 큰 욕심은 없이 그저 한두 사람에게라도 올바른 불교를 전하고 싶었다.

마침 불교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배 도반들이 이미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배워 불교를 설명하는 모습이 부럽고 인상 깊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2004년 포교사 시험에 도전했다. 필기와 목탁 습의, 1분 스피치 등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 마침내 정식 포교사가 됐다.

그가 포교사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방법은 ‘봉사’였다. 첫 활동지는 불교계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연꽃마을 감로당. 한 달에 두 번씩 이곳을 찾아 와상(臥牀) 어르신들을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돕고, 말동무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목욕 봉사다.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을 안아 옮기고, 욕실로 이동해 바닥에 눕히고 씻기는 과정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늘 무릎을 꿇어 어르신들을 단단히 지탱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늘 조심 또 조심, 긴장의 연속이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항상 보람찼다. 그렇게 15년. 그는 묵묵히 어르신들 곁을 지켰다.

“어르신들이 처음엔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대하듯, 또 친구 대하듯 진심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했죠. 한 해 두 해 추억이 쌓이니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양로시설 봉사일을 피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에도 꼭 들렀다. 사회복귀를 앞둔 환자들에게 불연을 맺어주기 위해서다. 병실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불교가 잠시라도 위로가 되길 바랐다. 처음 그를 맞이한 건 무표정한 얼굴과 냉담한 반응뿐인 환자 10명 남짓. 말을 걸어도 선을 긋듯 딱딱하게 끊기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웃종교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법회인 만큼 더 잘 해내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었다. 무작정 불교 경전을 읽었는데, 흥미 없는 환자들의 표정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다. 어렵고 복잡한 경전은 접었다. 대신 찬불가를 함께 부르고, 불교 서적을 나눠 읽으며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려 애썼다. 그의 정성 덕분일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이 먼저 자리에 앉아있고, 스스로 불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한 환자는 종이로 손수 접은 발우 모양 상자를 선물로 건네기도 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열심히 만들었다”는 환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 발우에는 목탁을 담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간식 지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복바라미 모금 캠페인, 군법당 법회와 간식 지원, 사찰 청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현재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대학병원 병원법당에서 법회 진행과 환자·보호자 상담을 맡고 있다. 언제나 누군가의 ‘빈자리’를 향해 있는 그는 20년이 넘게 봉사의 길을 걸어온 ‘봉사 전문가’다.

물론 오랜 시간 봉사를 이어오면서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 그럴 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단 30초만이라도 멈춰 마음을 내려놓는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선을 살짝 돌려보기도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도 피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돕는 그만의 비결이다.

“나도 사람이니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결국 그 한 걸음을 떼게 돼요.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거죠. 한번 못 간 적이 있는데,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갈걸, 계속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는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 신행에도 열심이다. 꾸준히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정진하고 있고, 10년 전부터는 스님의 권유로 〈금강경〉 〈화엄경〉 〈법구경〉 등을 사경하고 있다. 한 자 한 자 따라 쓰고, 의미를 해석하면서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다.

“그냥 읽을 때랑 쓸 때는 다릅니다. 글을 읽고, 쓰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경은 1석 3조 신행 방법이에요.”

그는 매일 사경한 내용을 SNS로 공유해 도반들과 부처님 말씀을 나눈다. 글귀 하나에도 힘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이런 작은 실천도 그에겐 중요한 포교다.

그는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인연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곧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봉사하느라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적도 있지만, 그런 삶을 존중해준 가족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등을 닦던 그 손이 환자의 마음을 두드렸고,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또 다른 어르신에게 다가간다. “아부지, 오늘은 내가 해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⑨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줄 요약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은 유효 기간 동안 마음껏 사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후회와 집착은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이들의 변명일 뿐이다.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쿨하진 못해도 소월처럼 아름답게 보내려 노력은 한다.



마음껏 사랑하고 '쿨'하게 보내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힘없이 돌아서던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견뎌야 해/ 추억이 아름답도록"

김건모가 부른 '아름다운 이별'이란 노래의 가사다. 이별이 슬프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이 아름답도록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래 제목처럼 이별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 노래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실제 이별은 그렇지 않다. 그저 아프고 또 아플 뿐이다. 애써 잊으려 노력하다 눈물이 나오기도 한다. 가수 역시 "한동안 난 가끔 울 것만 같아"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마친다.

이별이 힘들어서인지 이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예전 드라마를 보면, 자신과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나온다. 때로 자신을 떠난 연인을 스토킹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별이 힘들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별이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함께한 시간 때문이다. 이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업(業)'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몸과 말, 마음으로 지은 행위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만 주어지면 불쑥 튀어나온다. 예컨대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해도 긴장하거나 결정적일 때는 자신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인과 이별해도 그동안 사랑했던 기억이 무의식에 두터운 업으로 남게 된다. 그녀와 걸었던 가로수길, 차를 함께 마신 카페 등을 지나가면 지난 추억이 떠오르는 이유다.

나훈아도 '갈무리'에서 노래하지 않았던가. 잊어야 하는 줄 아는데, 이제는 남인 줄도 아는데, 자꾸만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고. 사랑 갈무리가 잘되지 않는 자신이 밉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업(業)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지혜를 얻어보기로 하자. 이 시를 읽으면 과연 이별을 잘할 수 있을까?

김소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를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명은 김정식(金廷湜, 1902~1934)인데, 대중에겐 소월(素月)이라는 호가 익숙하다. 글자 그대로 하얀 달이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하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인물이다.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한(恨)의 정서를 시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유학을 떠날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과 한국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게 된다. 귀국한 후에는 '동아일보' 지국을 열고 운영했으나, 일제의 방해 등으로 문을 닫고 만다. 당시에는 가세도 기울어져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술에 의지한 소월은 1934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뇌일혈로 삶을 마감한다. '진달래꽃'을 비롯한 '엄마야 누나야', '산유화', '초혼', '나는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등 주옥같은 시들만 남아 시인을 추억하고 있다.

'진달래꽃'은 김소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다. 1922년 7월 〈개벽〉 잡지에 처음 실렸으며, 1925년 발간된 시집 〈진달래꽃〉에도 담겨있다. 이 책 초판본은 2011년 문화재로 등록될 정도로 우리에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자신을 떠나는 여인이 사뿐히 즈려밟고 갈 수 있도록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린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시는 가수 마야가 노래로 불러서 더욱 익숙하기도 하다. 이 외에도 '엄마야 누나야'를 비롯하여 정미조가 부른 '개여울', 배철수의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등의 노래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시인은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사랑과 이별, '因緣'서 비롯돼
인연 있어 만나고 헤어짐 반복
이별을 인정 못하고 집착함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단 증거

'인연생인연멸(因緣生因緣滅)'

오랜만에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난 연인을 위해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미움과 원망이 먼저일 텐데, 아마 그 아름다운 꽃을 즈려밟고 가시라 노래할 정도로 깊이 사랑했던 것 같다. 이런 시는 진하고 가슴 아픈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 쉽게 나올 수 없다. 실제 소월은 할아버지의 결정으로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만,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둘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어찌 보면 소월에게 사랑과 생의 이별이 함께 찾아온 셈이다. 원하지 않은 결혼, 금지된 사랑, 연인의 죽음. 소월 앞에 놓인 현실이었다. 시인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아파했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시 속에 남아있다.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로 시작하는 '초혼'은 그녀의 장례식을 다녀온 후에 쓴 시다. 소월이 진달래꽃을 땄다는 영변의 약산은 지금은 북한의 핵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핵 오염으로 진달래는 물론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땅으로 변했다 한다.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은 느낌이다.

시인은 떠나간 여인의 아픔을 노래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별을 대하는 자세 또한 엿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과 이별을 '인연'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한마디로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인연생인연멸(因緣生因緣滅)'이라 한다. 굳이 사랑과 이별을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인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온 산하가 연초록 잎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인연은 역설적으로 그토록 아름답게 피었던 벚꽃이 모두 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봄이라는 인연이 벚꽃을 피웠다면, 벚꽃이 인연을 다해 연초록 잎들이 나온 셈이다. 이제 곧 봄의 인연이 소멸하고 여름의 짙은 초록이 찾아올 것이다. 그 뜨겁던 여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 것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는 현장에 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랑은 인연이 찾아온 것이며, 이별은 그 인연이 소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지금 그 인연의 소멸에 대해 아파하고 있다. 흐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고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다짐도 한다. 인연이 다했음을 인정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앞서 말한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스토킹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일부 그릇된 경우와 사뭇 다르다. 1986년 상영된 영화 '나인 하프 위크(nine 1/2 weeks)'에 나오는 대사다.

"둘 중 하나가 끝이라 말할 때 끝인 거예요."

이별을 통보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상대에게 여주인공이 한 말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9주 반 동안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그 정도가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는 뜻인 것 같다. 어찌 사랑에만 유효 기간이 있겠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 또한 마찬가지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無常)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연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다이내믹한 삶의 과정에서 만남과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소월은 떠나간 여인을 위해 진달래를 따다가 애써 쿨한 척 보내주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죽을힘을 다해 눈물을 참고 말없이 곱게 보낸 것이다. 유효 기간 동안 연인을 마음껏 사랑했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원래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후회도 적은 법이다. 남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정성을 다한 효자는 장례식장에서 그리 울지 않는다. 가장 많이 우는 자식이 가장 불효했다고 생각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부모에게 잘못한 일들이 후회되어 우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연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사랑하고 이별하면 지나간 일은 집착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이별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은 유효 기간 동안 마음껏 사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후회와 집착은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이들의 변명일 뿐이다.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 쿨하진 못해도 소월처럼 아름답게 보내려 노력은 한다. 이것이 사랑했던 이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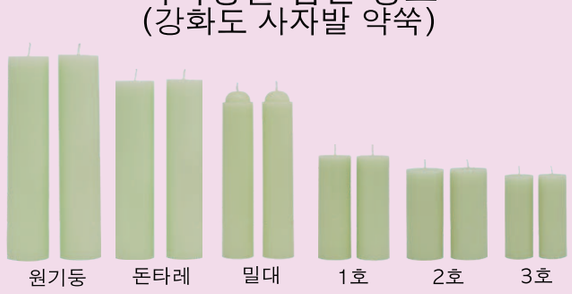
온 세상이 연초록으로 물들고 있다. 연초록 타임이 끝나기 전에 마음껏 후회 없이 즐겨야 할 것 같다. 이 또한 아름다운 계절에 대한 예의 아니겠는가. 그리고 인연이 다하면 쿨하게 보내주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겠다. 곧 여름이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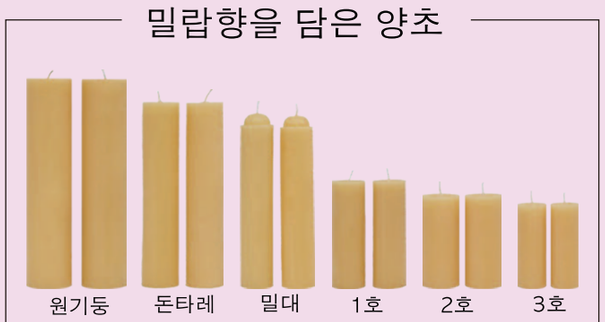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1호 | 15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월세 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 문의, 가격 절충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개인 토굴, 전원주택, 선방용으로 추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7천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
- 유명한 산 칠부능선, 암반에서 1급수 약수가 365일 사시사철 흐르고, 앞에 큰 계곡물이 흐름
- 가옥 : 25평, 40평(2채)
- 평수 : 8000평에 밤나무와 과실수 현재 수확 중
- 가액 : 12억
- 터를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010-5343-671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대구시 동구 최고 중심 11억 대웅전, 종무원, 요사채, 산신각 지하철역, 대웅전 뒤에는 좋은 산
- 경북 청도 이서 아름다운 사찰 전통양식 대웅전 등 5채 6억5천
- 봉화토굴 : 건평 38평 4천5백만원
- 영천토굴 : 건평 40평 4천3백만원
- 대구 동구 000종단본부 뒷산 팔공산, 앞산전망 최고 대웅전, 종무원, 산신각 등
- 대구사찰 :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 팔공산암자: 2억원 호조건
- 고령사찰: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4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3500평 사찰입니다

황종사

(본찰)황종사
회주/단원
같이 고민할 스님
초청합니다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원

010-4835-1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약사암
- 위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독채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세30만원
- 평생 거주 가능

010-6224-2199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건 물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포동 7길6 무비모텔
- 대지 : 100평 / 건평50평 / 방32개 / 6층주택(포교원 가능 바닷가 보임) 방향 : 동향 어시장, 부림시장, 운동장, 학교 인접
- 가액 : 25억(절충가능)

010-3840-9986 (저녁7시 이후)
010-7772-7886 (오전오후)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구 약수역3번출구 초역세권(최고위치)
- 법당 : 20평
- 삼존불. 도시가스 난방.에어컨. (주거할수 있는 편한곳)
- 보증금 : 1000만원 월세 70만원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2090-44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31호 | 16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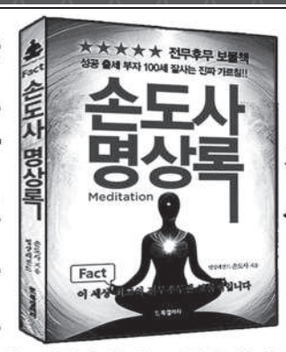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사찰홍보에 도움을 드립니다

YouTube,음반,출판,행장 등
제작,관리,감수 등
dalrma2025naver.com
다르마기획

010-8048-2145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사)한국불교어산종 종도모집 안내

한국불교어산종은 영남범패 종단으로써 남성적이고 웅건함을 지니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기질과도 닮은 표충범패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할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범패 교육원 수강생 모집

의식 및 사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보로 수업)
총무원장 010-2665-9108
어산원장 010-3156-2211
'밀양영산재보존회'

사)한국불교어산종 총무원장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장 생 탕 제 원

암, 당뇨, 백혈병, 전립선, 조루, 발기부전
한밤중에 자다가 뒷다리에 쥐가 난다(혈액순환을 잘되게 하세요)
농협 : 352-0632-0488-93, 하나은행 : 577-910361-13007
예금주 : 김 정 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33길 18
식이요법 · 자연요법 · 면역요법

010-2046-0260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⑩ '힙하게'(2023)

모든 생명은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하다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52만이라고 한다. 이 숫자를 인구로 계산하면 어림잡아도 1324만 명이 넘으니 대략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지낼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답한다. 보통의 경우는 눈빛이나 표정, 몸짓으로 교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아파서 힘들어할 때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그래서 떠오른 오늘의 드라마는 '힙하게'이다.

봉예분(배우 한지민)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모와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외할아버지처럼 수의사가 된 예분은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이어받았다. 작은 농촌 마을인 무진시에서 동물병원이라 함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보살피는 '가축병원'. 가축에 관심이 전혀 없는 예분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꾸리고 싶어한다.

어느 날, 마지못해 출장을 간 소 농장에서 출산이 임박한 황소의 엉덩이를 만지며 새끼를 촉진하는 순간, 농장에 유성이 떨어지고 예분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동물의 엉덩이를 만지면 동물이 보고 들은 일이 보이는 초능력이 생긴 것이다. 처음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하던 예분은 열다섯 살 늙은 개 덕구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할아버지가 안타까워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연을 할아버지에게 전하며 비로소 초능력의 쓰임새를 발견한다. 덕분에 줄을 설 만큼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과연 이 초능력이 사람에게도 발휘되는지 확인하려는 예분. 문제는 이 초능력이 엉덩이를 만져야만 발휘된다는 점이다. 고민하던 예분이 일부러 만원버스를 골라 실험하는 순간, 문장열(배우 이민기) 형사에게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만다.

한편, 광역수사대 형사였던 장열은 어떤 사건의 결정적 용의자에게 속아 촌구석 무진시 강력반으로 좌천되어버렸다. 그러니 어떻게든 강력사건을 해결해서 성과를 인정받고 광역수사대로 복귀하는 것이 유일한 장열의 꿈이다. 그런데 만원버스에서 남자의 엉덩이를 만지던 예분을 체포했더니, 엉덩이를 만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본다며 자기가 초능력자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한 장열의 입장에서는 예분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서울로 복귀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만 같다. 이렇게 이 둘이 힘을 합쳐 연쇄살인사건을 추적하며 범인을 잡는 이야기가 '힙하게'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해지고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반려'라는 개념보다는 '애완'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개를 예로 들어보자. 개는 그저 마당에 목줄을 하고 앉아 있다가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짖어대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하는 동물이었다. 낡고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먹여 키우고, 그 집을 지키는 '가축'이었던 것이다.



JTBC 드라마 '힙하게' 포스터.
사진출처=JTBC 홈페이지

생활환경 변하면서 '동물권' 인식 생겨나
불교는 일찍이 동물에 불성 있다 가르쳐
수행자 발원 담아 보리·수리로 이름 지어

진정한 애완견(愛玩犬), 그러니까 '장남감 개'는 우리가 사는 집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생겼다. 마당 있는 집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개들도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개가 요긴해졌다. 애완견은 미용실에서 목욕과 치장을 시켜주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주어야 하며 사료를 따로 먹여야 했다. 같은 방에서 함께 사니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덩치도 작으니 안아주기도 쉬워서 접촉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자연스럽게 개를 '내 아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람들은 저절로 '엄마'와 '아빠'가 된다. 아파트 생활에 맞게 함부로 짖지 않고 용변을 가릴 줄 아는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하루 종일 혼자 둘 수 없으니 강아지 유치원도 성행 중이다.

세상의 이런 흐름을 타고 'TV동물농장'(2001)과 '주주클럽'(2002~2009), '와우! 동물천하'(2002~2003)와 같은 방송이 생겨나면서 '동물의 왕국'(1969)이나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1984~2004)와 성격이 전혀 다른 동물의 세계를 전해주기 시작했다.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는 '애완'이 아니라 '반려하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고 주변의 동물들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함께 살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즉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진작부터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도 하고 산천초목이 설법을 한다고도 말해왔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남달랐던 것이다. 유명한 동물 훈련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동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전부터 모든 생명이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또 그런 만큼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 불교식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조주 스님 덕분에 사찰에 사는 개 이름이 '무(無)'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화두를 챙기고 싶은 수행자의 발원이 담겨 있을 것이다. '보리(菩提)'라는 이름도 괜찮아 보인다. 보통 반려견을 부를 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리!" 하고 시작하면 "보리, 보리, 보리!"의 3연타는 기본이다. 반려견을 한 번 부를 때마다 보리 진언을 세 번 염송하는 셈이다. 듣는 보리도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던 보리심을 일으켰으면 싶다. '수리'라는 이름도 좋을 것 같다. "수리, 수리, 수리!"를 부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저절로 정구업진언을 염송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3년 전후를 사는 반려견은 대체적으로 인간보다 먼저 떠나게 마련이니 그들의 생과 사를 모두 '내'가 함께 하는 셈이다. 그들의 짧은 생은 어쩌면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도 모른다. '보리'라는 이름에는, 세상의 많은 보리가 금생의 보리 진언 공덕으로 내생에는 생사를 벗어나 축생의 탈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

이별의 슬픔은 누군가와 함께한 기억이 많은 만큼 크다. 가정의 달이나 되어야 사람 가족을 만날 일이 아니라,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만큼도 슬프지 않은 민망함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드라마 '힙하게'가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중요한 건 초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다. 지금 당장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고, 말을 건네 보시라. 그러면, 초능력 없이도 소중한 이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테니."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원광 법사 등에 의해 지장사상 전파돼
진표 율사 '점찰참회법' 독창적 신행법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⑲ 지장사상의 유래와 역사(2)

중국 지장사상의 초전(初傳)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唐) 도세(道世, 서명사승)의 〈법원주림〉권17에 의하면 진(晉) 시대부터 지장신앙이 있었다고 하므로, 3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조시대의 진·송·양·진·진·조(晉·宋·梁·陳·秦·趙)로 부터 수(隋)의 통일을 거쳐 당(唐) 대에 이르는 400년 동안 지장존(地藏尊)은 관음·미륵·미타와 함께 신앙되어진 것을 도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북량실연(北涼失譯) 〈십륜경〉이나 양조(梁朝)의 화상(畵像)에 의하면 "중국의 지장존의 신앙은 육조(六朝)에 기인하지만, 그 성행은 정확히 수당(隋唐)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육조에서 출발하여 수당 이후에는 지장신앙의 기운이 만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隋)시대에는 사미 신행(信行)이 지장교의를 중심으로 한 삼계교(三階教)를 비롯해 〈지장십륜경〉 수종(數種)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이미 〈점찰선악업보경〉이라는 지장신앙에 기초한 위경(僞經)이 세간에 유포되었다는 것이 법경(法經)의 〈중경목록(衆經目錄)〉권2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唐) 시대에는 지장신앙이 활발해 중국 재래 도교(道教)의 십왕(十王)사상을 입수해 만든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이나 〈지장십왕경(地藏十王經)〉이 있고, 또 스타인이나 페리오가 돈황에서 모집한 출토품 중에는 〈불설지장보살경(佛說地藏菩薩經)〉을 비롯해 건륭(建隆)이나 태평흥국(太平興國)등의 연호가 보이는 몇 종의 지장십왕도가 있어 서천(西天)지방 지장신앙의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지장신앙의 역사는 조선에 〈지장본원경〉 〈불설예수십왕생칠경〉 〈지장보살영험전〉 1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 내지 조선 초기 작품으로 보는 금동(金銅)의 지장존상도 있었지만, 특히 지장신앙으로서 주의를 끄는 것은 중국과 같이 지장십왕신앙 이외에 지장존이 청면금강(靑面金剛)과 혼합되어 신앙되었던 행적이 확인됩니다. 이는 다른 불교국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앞선 연재에 실린 〈삼국유사〉의 여러 부분에 나타난 확실하고도 명료한 지장사상, 즉 원광 법사, 자장 율사, 의상 스님, 원효 스님, 사복 스님, 진표 스님, 심지 스님 등에 의한 지장신앙의 전파는 한국불교 지장사(地藏史)에 한 획을 그을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특히 진표 율사의 불교 참회사상에 의한 '점찰참회법' 또한 세계 어느 불교사에서도 볼 수 없는 뛰어난 것임에 자부할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어느 마을의 길모퉁이를 보아도 조그마한 지장상을 모시고 있어 지장신앙의 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 지장 보살상(2척 5촌, 적전단향나무)은 577년 민달천황6년 10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전래된 것으로서 백제 비구니스님에 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지장사상 근원은 백제에서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장신앙의 전래는 나라조(奈良朝)이나 성행은 헤이안(平安, 794~)중기 이후에 속합니다. 특히 밀교와 함께 유행하며, 무장(武將)들 사이에서 신앙되어 도쿠가와(德川) 시대에는 24찰소 순례(札所順禮)가 생기는 성황을 보이며, 전국에 이르는 민간 불교로서 지장신앙을 두텁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하면 영가들의 천도와 관련지어서 재를 지내는 여러 행사를 보게 됩니다만, 그것은 지장의 원래 성격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지장신앙 또한 기존의 도교(道教)의 십왕(十王) 사상을 입수해, 경전 등을 창작한 것 등과 같이 원래 신앙이나 사상은, 그 민족의 풍토 등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한국에서의 지장신앙은 거꾸로 일본의 지장신앙을 다시 수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일제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들어온 것 같으며, 이른바 장례불교의 기본(일본의 정토종은 제일의 신도와 납골당을 지니고 있음)을 시작으로 지장신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삼국시대에서의 지장신앙, 즉 참회불교로서의 수행을 위주로 하는 행법(行法, 점찰참회행법)과 비교가 되는 점입니다.

〈송림사 주지〉

시민을 위한 무료
싱잉볼 명상체험 학교
내 삶의 빛
이제는 명상시대

개강 : 2025년 6월 5일(목) 오후8시



싱잉볼 메디테라피스트 김경숙
동국대학교 응용불교학 박사 / 외래교수





명상지도사 평천 범혜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장소 : 서면 신동아오피스텔 5층
일정 : 6월~12월 매주 목요일 20:00~22:00
(21시 이후 체험은 자율)
후원 : 부산광역시

싱잉볼 소리는 심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인체 고유의
에너지센터와 공명을 일으켜
인체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에너지장을
복구시키는 자연치유적 효과가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100일 기도
입재 : 2025년 6월 5일(목) 오후7시
회향 : 2025년 9월 12일(금) 오후7시
일정 : 매주 목요일 19:00~20:00

불교학과 신입생 모집 [상시]
강의 : 매주 화요일 19:00~21:00
강사 : 학장 평천 범혜 스님
내용 : 불교핵심 기초교리부터 불교 전반에 대해
초심자도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강의함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⑩ 모든 차별 넘어 부처님 나라로

▶한줄 요약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랐던 마음은 불사를 이끌었던 스님들이나 재가 여성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600여 명의 발원자들은 승속을 넘어, 성별의 다름을 넘어,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극락에 함께 왕생하기를 꿈꾸며 힘을 모았을 것이다.



작은 종이 위에 차별 없이 담긴 바람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장(腹藏)은 의례를 통해 조형물인 불상 안에 부처를 모시는 일이다. 의례의 결과 불상 안에 모셔진 여러 물목들도 복장이라고 부른다. 복장을 지닌 고려시대의 불상은 현재 20여 건에 달하며, 불상의 복장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복장에서 발견되는 기록유산은 전적과 사경(寫經), 다라니(陀羅尼), 발원문(發願文) 혹은 조성기(造成記)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불사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역시 발원문이다. 복장에서 발견되는 발원문에는 통상 발원의 목적, 불보살의 존명, 불상이 조성된 사찰이나 봉안될 장소, 제작 시기, 그리고 불상 조성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 같은 발원문은 제작 당시에 작성된 것과 불상을 중수하거나 개금할 때 남긴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과 은제 난간, 고려 1383년, 은에 도금, 난간 너비 44.2cm,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제공=리움미술관

신앙과 염원을 반영한 삼존불의 도상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복장물을 지닌 고려 후기의 불상 중 하나이다. 은제 난간, 청동합과 은제합 등의 유물이 함께 전한다. 주존인 아미타여래를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불의 구성이다. 원래는 난간이 있는 불단 위에 삼존상을 모셔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구의 불상은 상, 대좌, 광배를 각각 따로 만들어서 끼우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대좌와 광배를 서로 결합하면 전체 높이가 약 30cm 정도에 달한다. 불상, 대좌, 난간은 당시로서는 값비싼 재료인 은제합금으로 제작되었고, 광배는 순동으로 만들어졌다. 광배에는 넝쿨무늬를 투각해 장엄했다.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의 머리카락에도 석청(石淸)이란 고가의 안료를 칠한 점에서 불상에 들인 공력을 엿볼 수 있다. 은제 불상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에 걸쳐 일시적으로 유행했다. 은은 특히 크기가 작은 불상을 만들 때 애호된 재료였다. 이 삼존불은 현존하는 은제 불상 중에서는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둥근 얼굴형과 단정한 법의의 표현은 고려시대에 발전했던 전통적인 불상형을 따른다. 두 협시보살은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양쪽 어깨를 가리는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가부좌를 튼 모습이다. 아미타여래의 머리에 중간계주가 없어지고, 좌협시보살인 관음보살의 보관이 망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에 가깝다. 이 삼존상에서는 우협시보살로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여래의 협시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든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경전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 같은 삼존의 구성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한 것은 아니다. 중국 사천성에 소재한 석굴사원에서는 당대(唐, 618-907)부터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한 쌍으로 등장하거나, 아미타여래를 비롯해 약사여래, 석가여래, 미륵여래를 두 보살이 보좌하는 삼존상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된다.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이른 시기부터 자비의 보살로서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던 관음보살과 달리, 대세지보살은 독자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불교미술 상에서도 독존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를 고려할 때, 아미타, 관음, 지장으로 구성된 삼존의 도상은 중국에서 당대 이래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배치한 결과로 생각된다.



'은제관음보살좌상'의 복장 발원문, 고려 1383년, 종이에 먹,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이는 고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673년에 조성된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7세기 후반에 경전에 규정된 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 도상이 확립되어 있었다. 또, 1333년에 조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이나 고려 후기의 여러 아미타삼존도가 보여주듯이, 경전에 입각한 아미타삼존 역시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리움 소장 '은제아미타여래좌상'이나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에 조성된 여러 불화와 불상은 이 시기 지장보살이 대세지보살을 대체하는 형식의 아미타삼존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음을 알려준다. 이는 내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 미술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고려 1383년, 은에 도금, 전체 높이 27.0cm,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1383년, 같은 원(願)을 세운 사람들

리움미술관 삼존불 중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상은 복장이 개봉되어 조사된 바 있다. 그중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한지에 먹으로 쓴 발원문을 통해 1383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결락된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발원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6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발원문은 '~대덕동발원문(~大德同發願文)'이란 제목으로 시작되며, 불상의 조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서원(誓願)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시주자의 이름을 적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제작의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발원문은 전체 37행이며, 각 행에는 대략 50자씩 글씨가 쓰여 있다. 여타의 고려시대 발원문과 마찬가지로 글씨의 크기나 글자체에서 질서나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승려와 재가 신도들의 이름도 일정한 순서 없이 뒤섞여 있다. 한편, 불사를 주도한 사찰의 이름이나 불상을 봉안할 지역, 전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 점은 1450년에 조성된 '통도사 은제아미타삼존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형식과도 매우 비슷하다.

발원문 첫 부분이 결락되어 법명은 알 수 없지만, '~대덕과 함께 한 발원문'이란 제목이 알려주듯이 삼존불의 발원을 주도한 이들은 스님이었다. 득도하여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고, 중생을 이끌어 모든 사람이 해탈할 수 있겠다는 발원의 내용 역시 발원의 주체와 호응한다. 6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발원자 중 절반 가까이가 법명(法名)을 사용한 스님이라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그중에는 법명에 '묘(妙)'자를 쓰는 비구니 스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뜬다.

재가신도 발원자 중에서 성씨를 소유한 상층 계급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롭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이다. 그 외에 왕실 여성으로 추정되는 순안옹주 이씨(順安翁主 李氏)도 눈길을 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승려와 성씨 소유자가 전체 발원자 중 대략 71.8%에 달하며, 나머지 28% 정도는 하층민 혹은 노비로 이해된다. 이 중 '가이 加伊', '고음이古音伊', '내은內隱', '소근小斤' 등은 고려 후기에 흔히 사용되던 하층민, 여성, 노비의 이름이었다.

이 발원문에는 발원자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이들의 구체적인 참여 내용이나 정도, 참여의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나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불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나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했을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발원문의 앞부분에 보이듯이,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랐던 마음은 불사를 이끌었던 스님들이나 재가 여성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600여 명의 사람들은 승속을 넘어, 성별의 다름을 넘어,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극락에 함께 왕생하기를 꿈꾸며 힘을 모았을 것이다.

가로, 세로가 각각 30cm가 조금 넘는 이 작은 종이 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있다. 이 위에서만큼은 승속의 구분도, 성별의 다름도, 신분의 차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이름이 적혀 있다. 신앙과 예경의 대상인 불상의 몸 안에 내 바람과 이름을 적어 넣은 발원문을 봉안하는 일은 불사에 동참한 이들에게 분명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복장에 참여하는 일은 여러 불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대행 스님

용도대로 자가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OO 선생님과 OO 보살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회장님들, 여러 신도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지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토론 겸 또 설법이라기보다도 우리 생활에서 그 뜻을 한데 모아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젊으나 늙으나 다 내 몸 하나를 끌고 가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문제에 의해서 내 가정을 끌고 나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사회, 아니 국가…. 우리는 국가를 등지고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국가를 두면서 항상 여념이 없이 부지런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 가정을 이끌고 가는 데는 내가 나를 알아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80%, 90%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항상 이 세상의 노예처럼 또는 습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난 그게 아닙니다. 그 화두 받는 것도 옛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공이 없이 뛰어야 하고 시공이 없이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끌고 가는 데 그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죠.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는 어떠한 점에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억겁 광년 전서부터,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하죠. 미생물로서 태어났다고 볼 때 그럼 그것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서 바로 나투면서 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하게 되느냐? 그 씨 심었으면 그 씨대로 또 태어나야 할 텐데 왜 그 씨대로 태어나질 않고 자꾸 모습이 바뀌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생명들은 즐거우나 고가 닥치나 항상 이런 것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애를 쓰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는 반면에 사람은 차원이 높아지고 바로 진화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진화력.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멍을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는다 이 소립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자기를,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좇아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마음은 바로 수천수만 가지로 낼 수 있다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수천수만 가지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차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업보도 윤회도 인과응보도 거기서 모두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날까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 치열한 개발에, 치열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등 동물로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라고 표현합시다. 잠재의식 속의 그 카세트에 수억겁에 거쳐서 감기고 감기고 또 감기고, 그 얽히고설키고 한 업보와 또는 인과응보와 유전성과 모든 것이 거기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여러분이 해 놓고 받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 것만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보에 의해서 또는 인과응보 유전성에 의해서 병고도 가난도 모두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감독한테 대사나 모든 걸 받아서 각본대로 영화를 하듯이.

그런데 불법에는 팔자 운명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왜? 지금 아까 내 몸 하나 끌고 가는 데도 그러한 여건이 주어져야만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그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설킨 그 자체를, 일차적으로는 그 모든 걸 녹여야 된다 이 소립니다. 녹일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망상을 끊어라." 이럽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즉 말하자면 바로 인과의 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망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님을 알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녹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습을, 그 살아나오던 악하고 선한 습을,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모든 걸 그 자리에 다 다시 놓는다면,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겁니다. 카세트에다 노래를 넣어 놓고 카세트에다 (녹음 안됨) … 한 것을 그대로, 그것은 고마운 것이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나를 다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거를 주는 것이다.'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건 스스로 잘돼. 여러분이 그것을 지엄해서 실천적으로 생활에서 해 보신다면 그것이 납득이 될 겁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대장 소장이나 이자나 방광이나 어느 부분을 막론해 놓고 모든 생명들이 일차 이차 삼차 사차 오차까지, 뼈의 세포까지 생명체들이 전부 얼개미 같은 그런 법망을 쫓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그 생명들은 어디를 따르느냐? 내 한생각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옛날의 태초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그 뜻, 한 점의 마음에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생각에 의해서 주인공에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대로 되게 하느라고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주인공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점 마음에 달렸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라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 축이 있습니다, 축. 우주의 축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이 축에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으로 가서 이 전체의 몸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 점, 그 한 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도 한 점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던지고 자식들한테도 아무렇게나 욕을 하거나 부부지간에도 아무렇게나, 조금만 잘못해도 "저런 도둑놈 같으니…" 아, 이렇게 말을 마구 하거든요. 그 생각,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닥치진 않아도 그냥 그대로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해 두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한생각이 내 몸을 끌고 가는 데 역점이 되고 또는 운전수가 되고 또는 사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침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축이 모든 거를 행해 나가는 데는 여러분이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와 같아서 잘못된 거, 잘된 거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냥 녹아 버린다.

이런 인연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열치열과 같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이 녹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업을 스스로서 지은 거는 스스로서 그것을 녹여야지, 강제성을 띠어서 녹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말씀해 드릴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내 몸 하나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면 바로 가정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아까 내가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몇 해 전입니다. 어느 신도가 정성을 보름 동안 지극히 들였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승진을 하려고 정성을 들였는데 끄트머리에 뭐가 나왔냐 하면 승진이 안 되고선 좌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그냥 울고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야." 그렇게 인제 쫓아 보냈죠. 그런데 서너 달 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대신 다른 사람이 승진이 돼 가지고 월남에 갔다 이겁니다. 월남에 가서 해골로 왔습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뒤에 아빠는 또 승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선 울기에 "그것 봐." 그러고선 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람이 지내 보고 겪어 보고 자기가 걸어 봐야 알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념 있고 좀 인내 있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연구하면서 발전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절이나 하고 그냥 갖다 기도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복이야, 어디까지나. 자기를 떠나서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무슨 약사보살, 집신 무슨 조왕, 뭐, 용왕 죄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고정관념이 없다 아까 그랬죠?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고정 행도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그래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야.

'이것이 색이면서도 공했고 공이면서도 색이다. 너희가 보이면 보이는 그 물질이 다 공했느니라.' 이 소리거든. '너희 보이는 물질은 다 공했느니라.' 그렇게만 얘기해 놨지 자세히는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외우기만 해. 공즉 색이다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 공해서 한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꽉 차서 돌아가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한 찰나에 돌아갈 때,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한 찰나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겠느냐. 어떤 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고 말하겠느냐. 어떤 거를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귀합해서 바로 그것이 '나'이자, '참나'이자 바로 공했느니라, (몸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탑돌이 하듯 노상 돌아가고 있어, 이게. 오관을 통해서 노상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 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어느 누가 '내가 부처'라고 말하며 '내가 중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니라. 동서가 둘이 아닌데 어찌 남녀가 둘이겠는가.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 어찌 남녀를 구별해서 너는 성불하고 너는 성불 못 하느니라 하겠느냐? 어린애가 코를 찔찔 흘리고 와도 그것이 바로 법담의 대상이요, 바로 스승의 대상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며 중생이며 바로 부처 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노라 했단 말입니다,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깨닫는 데는 깨닫는다고 하지 말고 '아! 감흥이 됐어. 느꼈어.' 이러고,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한 소식이다 이러는 거는 열반경지에까지 이르러서, 그릇이 다 비워졌을 때, 비고 나서 거기에 찰나찰나 내가 먹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맛을 알고 맛을 알게 해 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의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어. 그러니 관절이 아프니 관절을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참문제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후가 바로 지금이 있어야 사후가 있는 거지 지금 없는데 뭘, 뭘 가지고 말입니까?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 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게 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건만도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늙어 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햇빛 주랴, 묵은 빚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날 기복으로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너라, 덜 가져 오너라, 많이 가져 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 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 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라. 한 걸음 한 걸음 떼 놓을 때 공짜로 떼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돼.

여러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날 때 여기 전부 앉아 있지만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여기서 나가서 헤어졌을 때는 너고 나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이렇게 만나서 이럴 때는 원력이 있는 스님네라면 스님네한테 충전을 해 갑니다. 충전 있죠? 전기에 꽂아 놓으면 충전되듯이. 충전이 돼서 한 일주일 가면 또 충전이 빠져. 그럼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아니,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아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제각각이죠. 이름은 각각이나 그 이름이 해 줍니까?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에는 이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러나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진리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이름을 불러서 서로 웃을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그 능력을 길러서 모든 걸 안다면 이 몸도 그냥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신다면 또 답변을 해 드리죠.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이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5월 24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㊳ 불가촉천민 니디를 바꾸신 부처님, 부모 교육 '자존감' (3)

내면에 숨은 '니디'를 만날 용기

2600년 전 인도의 어느 숲길. 한 남자가 다급히 몸을 숨겼다. 불가촉천민인 그의 이름은 '니디'. 평생을 똥 치우는 일을 하며 누구에게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얼굴을 찌푸렸고, 심지어 그의 존재 자체를 혐오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을 지나간다는 소식에, 니디는 얼른 숲속으로 숨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될까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모습이라 미안하다', '나는 본래부터 누군가의 거부 대상이었다'는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수치심이었다. 수치심은 단지 잘못된 행동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틀렸다'는 인식이 아니라,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수치심은 인간 존재 자체를 뒤흔든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다. 어릴 때 겪은 작은 실수 하나, 남들과 달랐던 외모나 성격, 사랑받지 못한 기억 하나가 마음 깊이 새겨진다. 그 기억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인다. '넌 이상해', '넌 모자라', '넌 사랑받기에 부족해'.

자존감은 이런 속삭임을 잠재우는 조용한 외침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존재해도 좋다',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존재는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의 생명을 존중하는 감각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부모가 이 자존감을 아이에게 제대로 건네주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바로 부모 자신이 자존감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 자신도 어릴 적 자주 혼이 났고, 늘 비교당하며 자랐다. "넌 왜 그것밖에 못 하니?" "다른 애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런 말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감각은 점차 사라지고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만 남았다. 이 믿음을 품은 채 어른이 되었고 그 믿음대로 아이를 키운다. 분명 자녀를 사랑하지만 불안이 더 크고, 응원하고 싶지만 기대가 먼저 튀어나온다. 수용하고 싶지만 조급한 마음이 말투를 바꾼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통제하게 되고, 그 통제는 아이의 자존감을 조금씩 앗아간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 그저 불안한 사랑, 조건이 많은 수용 속에서 살아남은 방식 그대로 아이를 대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자책이 아니라 부모 자신부터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부처님이 니디를 대했던 방식은 오늘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부처님은 니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피하던 그 존재를 발견하고 숨어 있는 그를 향해 다가섰다. 그 시선은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관심이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청이다. 그리고 니디를 꾸짖지 않으셨다. 똥물이 튀자 니디는 본능적으로 움츠렸지만 부처님은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책망이 없는 시간이었다.

부처님은 니디를 물가로 이끌어 몸을 씻게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혐오하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보살핌이었다.

수치심의 뿌리를 껴안는 부모의 용기
자녀에게 자존감 주는 부모의 태도

오늘의 부모는 부처님처럼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존감을 건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 부모가 회복해야 할 것은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첫째,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모도 한때는 아이였고, 내면의 아이는 아직 그 안에 살아 있다.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온 기억 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수치심이 숨어 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미워하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가? 상처받은 내면의 니디를 만나고 품고 수용해 주는 것이 첫걸음이다.

둘째,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못했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은 나 자신을 채찍질해 온 오랜 습관이다. 이 목소리는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비판받은 부모는 비판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을 관찰해 보자. 그리고 비판 대신 이해하는 말로 바꿔보자. "왜 이렇게 예민해"가 아니라 "지금 좀 지친 상태야, 괜찮아"라고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를 통제하려는 욕구보다 함께 있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부처님은 니디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함께 걷고 함께 씻으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표현할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옆에 잠시 머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존재를 수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평가가 아닌 감각, 조건 없는 사랑이 담긴 언어가 필요하다. "잘했어" 대신 "네가 참 많이 노력했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사랑해" 대신 "너니까 좋은 거야"라고 말해보자.

부모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 시선은 내 안의 부끄럽고 실수투성이의 나,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를 먼저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이를 보려면, 내 안의 니디부터 만나야 한다.

*현대불교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㊴ 고관절 통증

고관절 통증,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게 되고 앉아있는 동작에서도 걷는 동작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방치할 경우 만성통증으로 발전하거나 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관절 통증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발생하는 근본 원인,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폭넓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통증, 왜 발생할까?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며 걷기, 뛰기, 앉기 등의 일상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러나 이 관절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고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경우, 관절과 연골이 닳아 통증이 발생하고 운동 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고관절 뼈의 모양이 변형되는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관절 구조 이상으로 인해 대퇴골 및 골반 관절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고관절 충돌증후군 역시 관절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초기에는 미미한 불편감으로 시작되어 점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고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의 문제에 의해 발생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부상,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대 염좌나 근육통이 발생하면 내부 구조는 물론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받아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들 근육과 인대는 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손상 시에는 관절의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긴 근육과 힘줄은 단단하게 뭉쳐지는 구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에서 근육 및 힘줄이 늘어나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척추와 골반의 문제 역시 고관절 통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허리 또는 척추의 변형, 골반의 비정상적 위치 또는 불안정성은 고관절에 비정상적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유발됩니다. 특히 앉거나 눕는 자세 등 일상생활 패턴이 잘못된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체중 지탱하는 중요 관절
과도한 운동, 퇴행 등이 손상 원인
방치 시 만성통증…치료 예방 중요

증상과 효과적인 진단 방법

고관절 통증의 대표적 증상은 무엇보다 걷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활동 후에 통증이 악화되며, 가끔은 휴식 후에도 지속되거나 아침에 몸이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절뚝거리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도 동반되며, 관절의 운동범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X선 촬영, MRI, 초음파 검사를 통해 관절 내부 상태, 연골 손상 여부, 주변 조직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의료진 질병을 진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계획이 세워지며, 혹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방법이 결정됩니다.

치료법 그리고 재활과 수술

고관절 통증의 치료법은 매우 다양하며 반드시 원인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약물치료로,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가 흔히 사용됩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주사 치료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 재활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의 지도 아래 실시하는 근력 강화운동과 스트레칭은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허벅지와 골반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구조적인 병변이 너무 심해 약물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치료에 반응이 떨어진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의 부위 및 방법의 병의 정도나 환자분의 나이,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술법을 고려하게 되며,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은 인체의 하반신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로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빠른 전문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평소 근력 강화와 올바른 자세 유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고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책이며, 모두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고관절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전법 일기

잇몸 통증서 시작된 작지만 큰 깨달음

어릴 적부터 단 음식을 좋아해 입에 항상 무언가를 물고 살았더니, 그 대가를 치르듯 치과에 갈 일이 많아졌다. 초등학생 때는 치아 교정기를 차기도 했는데, 불편하고 아픈 데다 정기적인 진료는 늘 두렵고 힘들었다. 그래서일까, 치과에 대한 기억은 유독 서늘하고 불편하다. 잇몸에 피가 나거나 통증이 있어도 모른척하며 세월을 보냈더니 마침내 나를 번쩍 깨우는 말을 듣게 되었다.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겠어요."

공포, 두려움, 억울함, 분노, 슬픔 등 온갖 감정이 휘몰아쳐 눈앞이 캄캄해졌다. 치아 하나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에서 내 감정은 생각보다 거세게 흔들렸다.

잇몸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다 보니 치아와 잇몸은 기억하기 싫은 감정을 품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감춰둔 분노, 내면의 슬픔이 그곳에 고스란히 쌓여있었다. 무력감, 불안, 비난, 두려움 등 그동안 알아주지 않아서 갇혀 있었다는 듯이 억압되고 회피했던 감정들을 통증을 통해 다시 만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잇몸 통증을 겪어보니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던 잇몸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으로 더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데 도움이 될 '잇몸치유명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잇몸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면 떠오르는 기억, 감정, 느낌, 감각 등을 바라보고 놓아주고 흘려보낸다. 태양처럼 빛나는 밝은 에너지가 잇몸을 감싸주는 이미지를 상상하며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고 생기 넘침을 느껴보기도 한다. 물론 치과 진료도 잘 받아야겠지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통증을 내려놓고 평안해진다면 몸의 통증도 훨씬 가벼워질 거라 생각한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로 고성제를 말씀하셨다. 고통은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붙잡고 있었던 무언가를 내려놓아 평안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라더니 치아를 닦는 방법도, 걷는 방법도, 말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방법도 새로 바르게 배워야 한다. 앞으로 남은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배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통증을 하나씩 경험해보는 여정이기도 하다. 몸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고 치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동안 아무 문제없었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었는지, 깨달으며 겸손해진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고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오늘도 발원한다.



한산 스님
온라인법당 '친절' 운영



송마나의 **시절인연**

우리의 대 스승, 부처님

오월은 부처님오신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다. 영국 철학자 조지 버클리(1685~1753)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다.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서 순수함과 창의성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대 스승이 아닌가.

오늘날에는 스승보다 선생이란 단어가 친숙하게 다가온다. 명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식을 속성으로 가르쳐 주는 선생, 예능 실력을 높이기 위해 기교를 알려주는 선생은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돈 없는 학생들은 감히 그런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아이를 나무랐다고 선생님을 때리는 학부모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옛 시절이 그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더욱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큰 선생님을 붙잡아야 한다. 젊은 시절, 나는 정역(正易)에 매료되어 청주에 기거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갔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찾아온 여성을 반기겠는가. 나는 서울에서 청주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세 차례를 더 찾아간 후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인간은 진여(眞如)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자신의 오욕칠정(五慾七情)을 잘라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중국 당나라 때, 위산 영우(潙山靈祐) 선사에게는 영운(靈雲)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영운은 영우 스님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보챘다. 영우 선사는 진리를 가르쳐 주면 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영운은 스승에게 계속해서 떼를 썼으나 그는 진리를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만 영운은 혼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봄날, 복숭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렸다. 그때의 기쁨을 시로 지어 나타냈다.

검객을 찾아온 지 삼십 년이 흘렀으니, 낙엽 지고 새싹 돋기 몇 번이던가, 문득 복숭아꽃 피어난 것 보고, 곧장 여래 속으로 들어와 보니 일체 어둠이 사라졌구나.(三十年來尋劍客 幾回葉落又抽枝 自從一見桃花後 直旨如今更不疑)

영운 스님은 진리를 찾기 위해 30년을 지나왔다.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을 잘라줄 선생님을 찾아, 영우 스승 밑에서 30년을 보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공부했겠는가. 그렇게 가을이 가고 봄이 오기를 반평생, 드디어 복숭아꽃이 핀 것을 보고 연각(緣覺)을 하게 되었다.

영우 선사는 영운 스님에게 말했다. "너는 복숭아꽃이라는 인연을 따라 진리의 세계로 들어섰다. 다시는 부처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스승 없이 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대 스승 부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보다 큰 인연이 어디 있을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오월의 하늘이 한층 푸르다.

〈작가〉

기자칼럼

'차별 없는 세상' 외면하는 대선 주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나부끼고, 언론은 연일 공약 분석에 분주하다. 하지만 정작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 하나가 들리지 않는다.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 법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에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계종은 최근 대선 주자들에게 건넨 정책 제안에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2021년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뜻을 밝혔다.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불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수차례 성명과 기도회,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침은 정치권엔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차별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쟁거리'로 치부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왜곡되고 편견은 강화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 법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의 본뜻은 사람을 가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종교는 약자와 함께 아파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며, 세상을 향해 연민을 실천하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차별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차별 없는 세상은 단지 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출발조차 할 수 없다. 불교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에서, 법회에서, 조용한 기도 속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평등을 차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여실지견의 안목 가져야 할 때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의 세계관은 연기론(緣起論)이라 할 수 있다. 이것쯤은 문자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안다. 일체 현상은 모두 상호 인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인과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5월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3년 전 5월 10일경 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파면으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 지은 행위 곧 업(Karma)에 따라 그 결과인 과보를 받는다는 업보설(業報說)을 말하며, 이를 인과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지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받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라고 붓다는 가르친다. 곧 여실지견(如實知見)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실지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고 해석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같은 사태나 상황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옳고[是] 그름[非]이 달리 보이게 된다. 그래서 시비가 일어난다.

가령 이번 대선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게 되었다고 전임 대통령 측에 책임을 물으면, 그들을 부정하거나 상대 당이 국정을 무력화하여 부득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 오히려 우국충정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같은 사태나 상황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견해

일체 현상, 상호 인연으로 일어나
국민 대표자, 공정과 상식 갖춰야
인과의 눈으로 살피고 판단해야

나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 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적법인가 불법인가를 판단하는 사법체제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 체계로 일차 판단하고, 다음은 선거라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한다. 정치권이나 사법부가 다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해도,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부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고 있다.

물론 선거 제도가 만능이라 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만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도 없다. 왜인가? 정치체제나 헌법 등 법률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그 역할을 실행할 때는 공정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은 그들을 소환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자는 이 같은 내외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화경〉에서는 여래께서 삼계(三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유행경〉에서는 나라의 안녕과 부강을 위해서는 '자주 모여 서로 바른 일에 대해 의논하고, 공명정대하고, 서로 존경해야 한다'는 등 일곱 가지 쇠퇴하지 않는 법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현재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인과적으로 살펴보고 그 상황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등에 대해 여실지견의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정관념 깨뜨리는 지혜의 눈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얼마 전 '실버(Silver) 사회와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교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에 대한 분석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불교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개신교의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분석 결과는 불교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많이 다르다.

사실 불교계에서는 노인 불자가 많고 젊은 불자가 적다는 것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도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노고청저(老高靑低)의 인구 분포와 연령대와 비례하는 불교 인구의 증가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겼다. 지금 당장

초고령사회의 불교 역할 모색
'나이 들면 절에 온다'는 궤변
정보의 인과 세심히 살펴야

은 절에 젊은 불자들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절에 많이들 올 것이라는 궤변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다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노인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또 어려서부터 절에 다닌 경험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 절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는 과거에 절에 오던 많은 노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을 달리했고, 그동안 많지 않던 젊은 불자들이 나이 들어 조사 시점의 노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련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노인 불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한 것이 앞선 인구학적 분석이 보여주는 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그런 억지스러운 고정관념이 생겼을까? 각각의 조사 시점에서 꾸준히 유지되던 노고청저 현상이 만들어낸 착시와 나이가 들면 불교를 찾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만들어낸 억지의 인과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의 현상에 매몰된 채 그것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인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감소 추세를 증가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볍게 여긴 안일함이 두 번째 실수일 것이다. 모든 일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할진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불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가당키나 할까?

지금 한국 사회는 온갖 착시와 잘못된 고정관념이 횡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인과를 지혜의 눈으로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社 說

대선 후보자의 첫 번째 공약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운동 기간이 20여 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당선된 후보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정부 운영에 나서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검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취임 후 공약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단계적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우려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불교 관련 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상황은 불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계종은 4월 24일 정책기획단 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태고종은 5월 15일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불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구지만, 정책을 넓고 깊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계종은 5월 15일 공개한 '국민 행복 정책 자료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간 제안 정책은 비록 공약이 되더라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책임 있는 논의 주체의 부재로 실현되지 않는 사례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불교계의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70주년에 부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5월 12일 열린 기념식에서 중앙신도회는 '신도조직 활성화'의 원년을 선언하고, 3대 핵심과제로 '사회통합 실현' '정신문명 선도' '사회적 역할 확대'를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11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국신도회로 창립해 1960년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됐다. 2004년 중앙신도회와 통합하고 신도회관을 건립해 활동 기반을 공고히 했으며, 부설법인 (사)날마다좋은날을 설립해 행복바라미 캠페인,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섰다.

70돌을 맞은 중앙신도회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뛴다는 계획이다. 교구신도회 및 청년층 포교 활성화를 통해 신도 조직을 공고히 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핵심 가치를 대중에 알리며 정신문명을 선도해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불교는 미증유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 현상으로 신도와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종교의 신행과 윤리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가 되어야 한다. 70돌을 맞은 중앙신도회가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해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5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5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5월 2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
SEORAK.MUSAN CULTURAL FESTIVAL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





대동제

- 대동제 _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
- 2025년 5월 23일(금) ~ 25일(일)
- 오전 11시 ~ 오후 8시
- 장소 :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광장 일대

제3회 설악청소년문화축전

-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2025. 5. 23.(금)
-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2025. 5. 24.(토)
- 전국 청소년 백일장 2025. 5. 24.(토)
- 전국청소년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 2025.5.25.(일)
- 전국 청소년 장기자랑 2025. 5. 24.(토)
- 문화체험프로그램및프리마켓2025.5.23.-25.

축하공연

- 개막식 - 크라잉넛 / 2025. 5. 23.(금)
- 댄스공연 - Hook(훅) / 2025. 5. 25.(일)
- 폐막식 - 뉴진스님 / 2025. 5. 25.(일)
- 장소 :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광장 특설무대

▪ 문의 : 02-732-5665 ▪ 홈페이지 : https://www.manhaemusan.or.kr

주최·주관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SOKCHO CITY